

陳士鐸의 現存醫書 八種序文에 關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朴基兌·尹暢烈

關於陳士鐸的現存八種醫書序文的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朴基兌·尹暢烈

通過研究陳士鐸的現存八種醫書，得出以下結論：

認為石室秘錄是華佗所著青囊書的復原本，而岐伯傳給陳士鐸的是張仲景補充說明完成的書籍。

本草新篇載藥271種，記述了從岐伯，張仲景，扁鵲所傳授的內容，但在範例及序文中，見不到與扁鵲相關的內容。辨證奇聞與辨證錄記述了幾乎相同的內容，但無有關病因，脈診，舌診等方面的內容，除外感以外，對雜病病理幾乎都是以五臟五行理論為依據進行了說明。

辨證玉函幾乎未在世間流傳，僅流傳有一種版本，且把陰陽，虛實，上下，真假作為其區別疾病的綱要。脈訣闡微據說是鬼臾區所傳，因其內容較少未單獨刊行，僅符於辨證錄之後補充了辨證方面的不足之處。據認為外經微言是陳士鐸從先師所授傳的書中最為奇異的書籍，是一本集陳士鐸醫學思想之大成的專著。洞天奧旨是陳士鐸的外科專著，在臨床極少應用刀針之法，而採用了以重劑為大補內消法，繼承了師傳及家傳的秘方，而且綜合了歷代外科著作的內容。

關鍵詞：陳士鐸，八種醫書，序文。

I. 緒論

陳士鐸은 淸初의 著名한 醫學家로서 一生동안 많은 著述을 하였지만 그의 生涯가 別로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학의 사승관계도 대단히 신비한 인물이다. 그는 家學을 계승한 基礎위에 名醫와 民間의 治療經驗을 널리 찾아다니고 求하였으며, 오랜 臨床經驗을 통하여 남다른 風

格을 가진 學術思想을 形成하게 되었다.

그의 著作에 나타난 創新의 思想은 後世學者들이 가장 讚揚하는 部分이다. 비록 陳士鐸의 現存하는 著作이 石室秘錄, 本草新編, 辨證奇聞, 辨證錄, 辨證玉函, 脈訣闡微, 外經微言, 洞天奧旨 등의 여덟 가지 밖에 되지 않지만 그 著書들에 대하여 整理 및 研究를 해 보면 여전히 그의 學術思想이 體系의이고 一貫性이 있음을 分明하게 알 수가 있다.

그의 著書들은 지금도 後世醫家들에게 많이

* 교신저자 : 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42-280-2601.

입혀지고 있으며 그가 주장한 醫學理論들은 後世에 여전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著者は 그 冊들의 편찬동기와 편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序文과 凡例, 跋文등에 고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現토 번역하여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더 나아가 現존하는 판본까지를 고찰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일반적인 책의 구성과 특징 등을 살펴보고 서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등을 파악해보며 現존하는 판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石室秘錄

禮集, 樂集, 射集, 御集, 書集, 數集의 6卷으로 되어있고 全書는 治法으로 綱領을 삼아 서로 대립되는 治法과 治則을 竝列하여 서술하고 있다. 卷一에서 卷五까지는 正醫法, 反醫法, 內治法, 外治法, 急治法, 緩治法, 正治法, 反治法 등 128法을 기술하고 있는데 每法마다 重點을 설명하고 方劑와 驗案을 덧붙여 놓았다. 卷六은 傷寒雜病 등의 證治이다.

陳氏는『內經』, 『難經』 등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책 속에는 적지 않게 獨特한 見解를 제시하고 있으며 治法處方에도 새로운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治療法에 內治法, 外治法, 老治法, 逸治法, 急治法, 緩治法 외에도 또 사람에 따라 치료하는 男女治法, 老少治法, 產前產後治法, 貧富治法이 있고 때(時)에 따라 치료하는 春夏秋冬法이 있고 지역에 따라 치료하는 東西南北治法이 있고 病에 따라 치료하는 寒治, 熱治, 正治, 反治法 등이 있다. 各法 가운데는 病機를 상세히 밝혔고 의문점을 구별하였으며 對照分析하여 빠짐없이 闡述하고 있다.

傷寒을 論함에 仲景의 處方에 구애받지 않고 經驗方을 기술한 것이 아주 많고 瘵證을 치료할

때 陽明만을 取하지 않고 더욱 補腎을 중시했으며 燥證을 論할 때 꼭 活用되는 것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發明한 바가 많다. 方劑 및 그 加減法을 논술할 때 아주 정밀하고 실용적인데 예를 들어 補中益氣湯에서 “妙在用柴胡 升麻二味” “去參芪則柴麻無力” 등의 내용을 기술했는데 印상의 실제에 아주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淸나라 雍正8年(1730년) 宛平의 馬弘儒는 이 책에 대해 “內外之理咸備하고 正反之論有條하며 緩急奇異之推求가 各盡其極하니 歎斯人之用意가 良厚且周也라” 하다는 評論을 남겼다.¹⁾

四庫全書總目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國朝陳士鐸撰이라 士鐸의 字는 遠公이니 山陰人이라 是書는 托名岐伯所傳이오 張機 華佗等發明이오 雷公所增補라 凡分一百二十八法이니 議論詭異하고 所列之方은 多不經見이라 稱康熙丁卯에 遇岐伯諸人于京都하야 親受其法이라 前有岐伯序하니 自題中清殿下宏宣秘錄無上天大帝眞君이라 又有張機序하니 自題廣蘊眞人이라 方術家固多依托이니 然未有怪妄至此者하니 亦拙于作偽矣라²⁾

石室秘錄에는 岐伯, 張機, 呂道人, 金以謀 등 4人的 序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醫道는 大矣哉니 非學博天人하며 非理窮幽秘하며 非傳得異人이면 則不可以談醫라 甚矣라 醫道之大而難也라 遠公陳子는 幼讀班馬之書하고 長習黃岐之教라니 且性喜好遊하야 足跡이 幾遍歷宇內라 然而見聞不廣하니 所見者不過世上之文이오 所聞者不過時師之語라 欲匠心自師하야 以求刀圭之獲效니 雖所在奏功이나 終焦勞無術하니 仰天而嘆은 有以也라 康熙丁卯夏秋之間에 遇我於玉河之西하니 初不知我爲天上人也라 與之辯難『內經』諸書하니 多未曾有라 余出秘錄示

1) 中國醫籍大辭典籌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中國 上海科技出版社, 2002. p. 613.

2) 永瑤等撰,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95. p. 888.

之하니 乃手抄行笈하고 慨然以著書爲己任이라 余笑曰 君之志則大矣나 而君之學則未也라 遠公이 愀然曰 我安得讀盡碧落秘函以救天下哉아 余乃於袖中에 出此書與觀하니 目瞪口呆하야 不敢出一語라 余乃細加指示하고 盡傳無隱하고 因戒之曰 子得此書니 可以著書矣라한데 而遠公은 猶以未足也어늘 余又爲之辯難『內經』者一月이라 陳子改容而謝之曰 吾今而後에 不敢以著書讓之後世也니라 余亦欣然色笑하고 遂將『石室秘錄』하야 令其抄錄一通하야 存之笥中하야 以備著書時之考稽也라 第是書奇怪하야 世多不識하니 倘以此治人之症하면 未免驚愕欲走라 吾傳之하야 以見天地之大에 何所不有니 正不必執此以治天下人어 使人疑俱(懼)而動其議論也라 因序數語於前하야 以警陳子遠公也하노라

天師岐伯 職拜中清殿下 弘宣秘錄 無上天眞大帝眞君 岐伯은 書于玉河之南하노라. 時康熙丁卯冬至前一日也라.

(의학의 도는 큰 것이다. 학문이 하늘이나 사람에까지 넓지 아니하며 이치가 그윽하고 비밀스러운데 까지 탐구하지 않았으며 이인에게서 전수받지 않았으면 의학을 말할 수 없다. 심하도다. 의도가 크면서도 어려움이여 진원공은 어려서 반고의 한서, 사마천의 사기를 읽었고 자라서 의학을 익혔으며 또 성격이 유람하기를 좋아하여 발자취가 거의 온 중국천지를 다 다녔다. 그러나 전문이 넓지 못하니 본 것은 세상의 글일 따름이오. 들은 것은 당시 스승들의 말일 따름이다. 연구함에 스스로를 스승삼아 의약에서 뛰어난 효과를 구하였으니 비록 주효함은 있었으나 끝내 의술이 없음을 근심했으니 하늘을 우리러 탄식한 것은 까닭이 있었다. 강희제 정묘년(1687년) 여름 가을이 바뀌는 즈음에 나를 玉河의 서쪽에서 만났으나 처음에는 내가 천상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와 더불어 『內經』 등의 여러 서적을 토론하니 대부분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비록을 꺼내서 보여주니 손수 베껴서 책 상자에 넣고는 개연히 저술할 것으로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내가 웃으면서 이르기를 그대의

뜻인즉 크나 그대의 학문은 아직 아니다. 진원공이 얼굴색을 바꾸고 이르기를 내가 어느 때 天下의 秘書를 다 읽고 천하를 구하겠는가. 내가 소매 속에서 이 책(석실비록인듯)을 보여주니 아연실색하여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내가 자세히 지시를 하고 다 숨김없이 전해주고는 경계하여 이르기를 그대가 이 책을 얻었으니 저서를 할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진원공은 오히려 만족해하지 않거늘 내가 또 그를 위해 『內經』을 1개월 동안 설명을 해주었다. 진사탁이 얼굴을 고치고 감사하여 이르기를 제가 금후에 감히 저서하는 것을 후세에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기뻐하고 드디어 『石室秘錄』를 주어 그로 하여금 한 절을 베껴게 하여 상자 속에 넣게 하여 저서할 때 상고에 대비하게 하였다. 단지 이 책은 기이하고 괴이하여 세상에서 대부분 알지 못하니 만약 이것으로써 사람들의 병을 치료한다면 놀라서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전해서 천지의 광대함 속에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노니 이것을 가지고 천하사람을 치료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두렵게 해서 의문을 요동치게 할 필요는 없다. 몇마디 말을 앞에서 서문을 씀으로 인하여 진원공을 경계하노라. 천사기백, 직책은 중천전아래에서 홍선비록, 무상천전 대제진군을 배수받은 기백은 옥하의 남쪽에서 서문을 쓰노라. 때는 강희 정묘년(1687년) 동지전날이다.)

위의 내용은 기백이 진사탁을 만나 『石室秘錄』을 직접전해 주었고 진사탁이 이를 베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는데 기백의 서문이 둘이 만난지(여기서는 하추지간에 만났다고 변증록자서에서는 정묘추 노란국화가 처음 피었을 때라 했는데 음력 8월로 추정됨)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쓴 것으로 보아 둘이 만나서 교류하고 배우는 사이에 진사탁이 책의 저술을 병행했음을 알 수 있다.

嗟乎라 何醫道之大也나 精也나 神也오 然大而不知

其大^크而精^精而不知其精^精神^神而不知其神^神則猶之不大不精不神也。陳子遠公은 喜讀岐黃之書^{喜讀岐黃之書}於三十年于茲矣。于『內經』治法에 實能窺奧^{實能窺奧}而嘆醫道之不多法門也。人之病苦患多^{人之病苦患多}而醫之道苦患少^{而醫之道苦患少}有以哉。丁卯仲冬에 著書玉河之南^{著書玉河之南}逢岐伯與余^{逢岐伯與余}爲之辨難^{爲之辨難}驚怪詫異^{驚怪詫異}因慨然曰 安得天上奇書秘錄^{安得天上奇書秘錄}以活後世哉。岐伯이 乃傳此書二十四法^{乃傳此書二十四法}遠公又請^{遠公又請}每思一法^{每思一法}岐伯이 卽傳之一法^{卽傳之一法}思之思之^{思之思之}神鬼通之^{神鬼通之}非陳子之謂歟。今其書現在^{今其書現在}皆世所未見^{皆世所未見}誠恐旨意深邃^{誠恐旨意深邃}方法過奇^{方法過奇}慮人之不信之^{慮人之不信之}又請余發明^{又請余發明}余嘉陳子活人之心^{余嘉陳子活人之心}無有盡期^{無有盡期}乃逐門又尙論之^{乃逐門又尙論之}以見醫道之大而精^{以見醫道之大而精}精而神也。合而刊布天下^{合而刊布天下}使世知天地之間^{使世知天地之間}在所不有^{在所不有}有陳子之好善不倦^{有陳子之好善不倦}卽有天上人樂爲之傳術無已也。吾願天下人^{吾願天下人}盡讀茲編^{盡讀茲編}研幾深入^{研幾深入}無再誤天下人也。陳子請序^{陳子請序}書之異時云^{書之異時云}

漢長沙守 張機 職拜廣德真人은 題于玉河之南^{題于玉河之南}也。時康熙丁卯冬至后十日也。

(아 어찌면 이렇게도 의학의 도는 크고 정밀하며 신비스러운가. 그러나 커도 그 큼을 알지 못하고 정밀해도 그 정밀함을 알지 못하고 신비스러워도 그 신비함을 알지 못하면 크지 않고 정밀하지 않고 신비하지 않은 것과 같다. 진원공은 의서 읽기를 좋아하여 30년이 되었다. 내경의 처방에 사실상 심오한 것을 엿보았으나 의도에 법문이 많지 않음을 한탄하였다. 사람의 병은 많은 것을 몹시 근심하고 의도는 적은 것을 몹시 걱정하니 까닭이 있는 것이다. 정묘년(1687년) 음력 11월에 玉河의 남쪽에서 책을 지을 때 기백과 나를 만나 변론하고 논란하니 그가 괴이함에 놀라고 특이함에 입맛을 다셨다. 그리고 나서는 개연히 슬퍼하여 이르기를 어느 때나 天下의 奇書, 秘錄을 얻어서 후세 사람을 살린 것인가. 기백이 이 책의 24법을 전해주었는데 원공이 또 청하거늘 매양 하나의 法을 생각하여 기백이 하나의 法을 전하여 주면 생각하고 생각하고 귀신

의 경계까지도 통하니 진원공을 이르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 책이 현재 존재함에 모두 세상에서 보지 못하여 진실로 뜻이 심오하고 방법이 너무도 기이하여 또 나에게 發明해주시기를 청했다. 나는 진원공의 活人之心이 다함이 없는 것을 아름답게 여겨 이에 조문에 따라 尙論하여 의도가 크고도 정밀하며 정밀하면서도 신비함을 밝혔다. 합하여 天下에 간행 반포하여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사이에는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진원공처럼 착함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다면 하늘나라 사람들이 즐겁게 전해주고 기술 해주어서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천하사람들이 모두 이 책을 읽고 기미를 연구하여 깊이 들어가 다시는 천하사람들을 그르치지 말기를 바란다. 진원공이 서문을 청하거늘 과거에 써두었던 것이다.

한나라 장사태수 장가 배수받은 직책이 팽덕진인은 玉河의 남쪽에서 서를 쓴다. 때는 강희정묘(1687년) 동지후 10일이다.)

위의 서문을 분석해보면 진사탁의 내경을 깊이 연구했고, 기백이 『石室秘錄』을 전수했으나 내용이 심오하여 仲景에게 發明을 요청해서 거기에 응해주었다는 것, 그리고 진사탁이 思之思之하여 鬼神通之하고 好善不倦했다는 부지런한 학문연구 태도를 기술하고 있다. 실제로 『石室秘錄』을 보면 天師曰 다음에는 모두 張公曰이 있어 岐伯의 내용을 보충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는 張公曰 외에도 雷公曰, 華君曰, 孫眞君曰 등이 있어 天師曰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그리고 중경의 서문은 기백의 서문보다는 11일 늦게 작성되어 있다.

今上戊辰二月花朝後三日에 遠公陳子가 將岐天師『石室秘錄』^{將岐天師『石室秘錄』}하야 請序於余^{請序於余}余讀之驚異^{余讀之驚異}而嘆醫道之神而奇也^{而嘆醫道之神而奇也}夫醫至起死^{夫醫至起死}奇矣^{奇矣}而茲編은 實不止此^{實不止此}其文이 肆而醇^{其文이 肆而醇}其意深而旨^{其意深而旨}乃性天之學^{乃性天之學}非刀圭之書也^{非刀圭之書也}陳子^{陳子}學博天人^{學博天人}理通鬼神^{理通鬼神}人得此編之秘^{人得此編之秘}何患醫道之不入於化乎^{何患醫道之不入於化乎}而陳

子不然^하고 長跽而請子曰 習醫救一人^이 不若救一世也^고. 救一世^가 不若救萬世也^라하니 亦何言大而心善乎^아 吾尼山立教^는 不過救一世爲心也^니 已立立人^하며 已達達人^은 未嘗教人施德於萬世^나 然而尼山之書^는 垂之至今^{하니} 雖謂之救萬世^{라도} 可也^라 今陳子注『素問』, 『內經』^{이나} 余嘆其有志未逮^하야 乃以華元化青囊術^로 動之^{하니} 陳子愀然曰 吾安得此天上奇編^하야 讀之乎^아 余乃正襟而訓之曰 子(汝)欲注『素問』乎^아 舍青囊術^이 何^로以著書尙論爲耶^아 陳子憂之^는 而余曰 無憂也^니 吾當召岐天師^하야 盡傳之^하리라 蓋青囊秘術^은 華君^이 原得之岐天師者也^라 陳子再拜受教^하니 余乃邀天師至燕市^{한대} 而天師又邀仲景張公^하야 同游客邸^하야 晨夕往還^하야 罄傳方法^하니 共一百二十八門^이고 名曰『石室秘錄』^{이라}하니 卽青囊之術也^니 無方不神^하며 無論不異^라 陳子得之^하야 乃決奧闡幽^하고 肆力於『素問』^{이라} 以大壯其文瀟^{이라} 而陳子尤以天師傳之未盡^하야 更求仲景張公爲之發明^하야 以補天師之所略^{이라} 又請於天師召華元化^하야 質今昔之異同^{하니} 華君^이 又罄傳之毋隱^{하니}라 今其書具在^{어는} 陳子不樂自秘^하고 欲公之萬世^하야 不欲僅活一世之人已也^니 與尼山已立立人^하 已達達人之心^{으로} 不干古相同乎^아 但陳子苦於家貧^하야 不能速授梨棗^나 然而其言之大^이 其心之善^은 實覺覆被萬世也^라 陳子仍存之^라가 以待世之好善如子者^면 斯可矣^라 余因陳子請序^하야 遂題數言於前^{하니} 亦以勸天下好善之君子也^라 積善^에 必有餘慶^은 吾於陳子^에 見之^니 吾不願止陳子一人見之^고 天下人^이 亦可聞吾言以自勉於爲善^{이니} 毋讓陳子獨爲仁人也^아

呂道人^은 題于燕山^하노라.

(지금의 임금(강희제) 무진년(1688년) 2월15일에 진원공이 기백천사의 석실비록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서문을 청하거늘 내가 읽어보고는 특이함에 놀라고 의학의 도가 신비하면서 기이함에 탄식을 하였다. 대제 의학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데 이르면 기이한 것이거늘 이 책은 사실상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 문장이 극진하면서도

순수하고 그 뜻이 깊으면서도 맛이나니 天命을 받은 학문이요 일반 의학서적이 아니었다. 진원공은 학문이 하늘과 사람을 다했고 이치는 귀신을 통하였으니 사람들이 이 책의 신비함을 얻으면 어찌 의도가 대화의 경지까지 들어가지 않았음을 근심하리오 그러나 진원공은 그렇지 않다고 오랫동안 물어알아 나에게 청하기를 “의학을 익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한 세상을 살리는 것보다 못하고 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만세를 구원하는 것보다 못하다” 하니 또한 어찌면 이렇게도 말이 위대하고 마음이 착한가. 우리 공자의 가르침은 한 세상을 구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았을 뿐이니 내가 서고자 함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내가 통달하고자 함에 다른 사람을 통달케 하는 것은 만세에 걸쳐 사람을 가르치고 덕을 베풀어 아니었지만 그러나 공자의 책이 지금까지 내려와 비록 만세를 구했다고 이룰지라도 가한 것이 된다. 지금 진원공이 소문, 내경을 주를 달았으나 나는 뜻은 있으나 미치지 못함을 탄식하여 화타의 청낭술로 마음을 움직이니 진원공이 쓸쓸이 이르기를 “내가 언제나 이 天下의 奇書를 얻어 읽어 보겠는가” 라고 하였다. 내가 웃기를 여기고 가르쳐 이르기를 “그대는 소문에 주를 달고 싶은가. 청낭술을 버린다면 어찌 저서하고 尙論한다고 할 수 있는가” 진원공이 근심하거늘 내가 이르기를 “근심하지 말지이다. 내 마땅히 기백천사를 불러서 다 전해주게 하리라.” 하였다. 대제 청낭비술은 화타가 원래 기백천사에게서 얻은 것이다. 진원공이 재배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거늘 내가 천사를 불러 북경에 이르게 했는데 천사가 또 장중경을 불러 함께 객사에 머물면서 아침저녁 왕래하면서 方法을 다전해주니 모두 128문이요 이름을 석실비록이라 하였으니 즉 청낭술이었다. 어느 처방도 신이하지 않음이 없고 어떤 논술도 특이하지 않음이 없었다. 진원공이 얻어서 심오한 뜻을 결단하고 그윽한 내용을 천발하며 힘을 소문예다가 다 쏟아 부어 문장을 장대하게 했지만 진원공은 더욱 천사가 전해준 것이 미진하다고 하여 다시 장중경에게 발명해주

기를 구하여 천사의 간략했던 것을 보충하였다. 또 천사에게 화타를 불러달라고 청하여 지금과 옛날의 다른 점 같은 점을 질문하니 화타가 또 숨김없이 다 전해주었다. 이제 그 책이 모두 갖추어 지거늘 진원공이 비밀로 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만세에 공포하여 겨우 한세상의 사람만 살리고자 하지 아니하니 공자의 己立立人 己達達人 하는 마음으로 천고에 걸쳐 동일하지 아니 한가. 다만 진원공은 집이 가난하여 속히 출판을 맡기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의 위대함과 그 마음의 착함은 실상 만세를 덮음을 느낀다. 진원공이 여전히 잘 보관하다가 세상에서 好善하기를 진원공과 같은 사람을 기다린다면 이에 가하리라. 나는 진원공이 서문을 청함으로 인해 말을 앞에다 쓰노니 또한 천하의 好善하는 군자를 권면하는 것이다. 적선을 하면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진원공에게서 보았으니 나는 단지 진원공 한사람만 보기를 원하지 않고 천하 사람들이 또한 내말을 듣고 스스로 善을 행하기를 바라나니 진원공으로 하여금 혼자 어진사람이 되게 하지 말지이다.

여도인은 연산에서 쓰다.)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진사탁의 “習醫救一人이 不若救一世也 救一世가 不若救萬世也”라 하는 어진 마음이 들어나 있고 소문과 내경을 주를 달 때 잘 진척이 안돼 고민할 때 여동빈이 기백을 불러 화타의 청낭술을 전해주게 했는데 이때 장중경도 함께 도와주었고 다시 화타의 도움까지 받아 이렇게 하여 완성된 책이 석실비록이라는 것이다. 여동빈의 서문은 장중경의 서문보다 약 3개월 뒤에 연산에서 쓰여 졌는데 역시 북경의 근처이다.

嘗稽天下事^{컨대} 可傳而不傳者^를 何可勝道^며 可傳而不傳^에 而或爲人憾^{하며} 或人不爲憾者^를 何可勝道^{리오}. 華元化青囊書와 嵇叔夜廣陵散 二者之不傳也^를 人恒憾之나 吾獨謂有可憾^{하며} 有可不憾^{이니} 今夫琴雅樂備^오 醫는 仁尤也^오 而皆本于先王^{인재라} 嵇生이 少

好音聲^{하고} 長而翫之^{하야} 自斯導養神氣^{하며} 宣和情志^{로대} 而身則不免焉^{하니} 母乃稍遠于先王之遺音乎^아 雖不傳^{이나} 奚憾^{이리오} 華君은 繼盧扁諸公而起^{하야} 獨成神奇^{하야} 能使痿者振^{하며} 弱者強^{하며} 枯者澤^{하며} 瘠者肥^{하며} 危者安^{하며} 瘍者壽^{하며} 死者生^{이라} 其學은 祖軒黃^{하고} 根于『素問』, 『內經』^{하니} 此誠守先王之道^{하야} 以待來茲^{하야} 以利澤斯民^{이니} 不可不傳也^{언마나} 惟不傳 故로 憾^{이라} 昔昌黎有言曰 莫爲之后^년 雖盛而弗傳^{이라} 하니 袁孝己는 嘗從嵇生學琴矣^{로대} 嵇吝勿與^{하니} 是廣陵散之不傳^{이니} 非無傳人而不傳也^오 華君授書獄卒^{이나} 獄卒疑畏 焚之^{하니} 是青囊書之不傳^{이니} 時無傳人^{하야} 斯不傳^{이라} 嗟乎^라 士生抱倜儻特達之才^{하야} 一旦激于義烈^{하야} 奮不顧身^{이면} 名垂宇宙^{언만나} 而其嘔心之所著述^이 曾不克留^후 來者之一目^{이면} 此其郁勃之氣^가 固結乎古今人物^{이나} 誰爲之解^며 而誰爲之釋^{이리오} 迨越數百千年^{하야} 忽有好學深思如遠公陳子者^가 聞風而慕^{하고} 誠求而得^{하야} 取淹沒久遠之遺文^{하야} 表章而出^{하고} 更闡揚其所未發^{이면} 謂非曠代一攄已哉^{리오} 第指迷自呂祖^{하고} 啓函自天師^{하며} 辨難參訂自真人^{하니} 迹近怪異^{하야} 或疑其說荒渺^{하야} 爲不可據矣^라 乃吾三復斯篇^{한대} 立方固奇 而立論甚正^{하니} 聚數賢之心思^{하며} 變古今之精靈^{하며} 審疾疢之幾微^{하며} 定醫治之龜鑒^{이라} 自來醫書 亦滋多矣^니 譬入龍宮^에 海藏珍寶雜陳^{이니} 取舍安決^고 未若斯錄^이 開卷了然^{이라} 故誠信而刊布^{하야} 以傳海內^{하야} 共欣賞也^라 方今聖人在上^{하사} 恭己垂裳^에 過化存神^{이오} 黎民固已殷動^{하고} 萬邦固已協和^{하야} 災陽癘疫 盡爲盛德大業之所銷息^{이나} 然猶朝夕乾乾^{하야} 軫念疾苦^{하야} 慮無一夫之不獲而後即安^{이라} 設是書梓而果行耶^아 家誦戶誦^{하야} 賢智는 神明而通變^{하고} 中材는 亦遵守而步趨^{하며} 偶試偶效^{하고} 再試再效^{하며} 歷久歷試^{라도} 萬不有一失焉^{이면} 則所以仰佐至治者 壽世壽民^{이니} 豈其微哉^아 夫事不能傳之無^{(于)先} 猶能傳之^于后^니 后先不同^{이니} 傳則一也^라 華君은 得陳子而傳矣^오 天師真人은 得華君抑又傳矣^라 世之覺者는 不以爲陳子所受之書

가 直以爲華君未焚之書라 恍乎師友晤對一堂하야 鬚眉飛動하리코 而耳提面命而口授也니 然後信書囊一書는 述足以仁民利物이니 究不啻于廣陵散之無傳也라 華君在天之靈이 吾知其無憾也已르다

時 康熙二十八年 歲次己巳 仲秋上浣之吉에 義鳥後學金以諫孝卞氏는 敬題하노라

(천하의 일을 상고해보건대 가히 전 할만 하되 전하여 지지 않는 것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으며 가히 전 할만 하되 전해지지 않는 것 중에서 더러는 사람에게 유감이 되며 더러 사람에게 유감이 되지 않는 것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으리오. 화타의 청낭서와 혜숙야(혜강)의 광릉산 두가지가 전하여지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항상 유감으로 여기지만 나는 홀로 유감되는 것도 있고 유감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이르나니 지금 거문고의 이익이 갖추어져 있고 의는 인술로 모두 선왕에게서 근본하고 있기 때문이다. 혜강은 어려서 음악을 좋아하고 자라서 그것을 익혀서 스스로 神氣를 기르고 情志를 배풀고 조화 했으며 몸은(비참한 죽음을) 면하지 못했으니 도리어 선왕의 남긴 음악에 좀 거리가 있지 아니한가. 비록 전해지지 않으나 무엇을 유감하리오. 화타는 편작 등을 이어서 일어나서 홀로 신비롭고 기이한 기술을 이루어 능히 위축된자 떨치게 하며, 약한 자 강하게 하며, 마른 자 윤택하게 하며, 마른 자 살찌게 하며, 위태로운 자 편안하게 하며, 일찍 죽을 자 오래살게 하며, 죽은 자를 살렸다. 그의 학문은 황제를 조종으로 하고 소문과 내경에 뿌리를 두니 이것은 진실로 선왕의 도를 지켜 미래를 기다려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윤택하게 한 것이니 불가불 전해져야만 하는 것이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유감이 있는 것이다. 옛날 한유가 말을 두어 이르기를 후계자를 만들지 않으면 비록 성하더라도 전해지지 않는다 하니 원효기는 일찍이 혜강을 좇아 거문고를 배웠으며 혜강이 아끼고 전해주지 아니하니 이래서 광릉산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니 전할사람이 없어서 전해지지 않은 것이다. 화타는 책을 옥졸에게 주었으나 옥졸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불태웠으

니 이것이 청낭서가 전해지지 아니한 이유니 당시에 전할 사람이 없어 전해지지 아니한 것이다. 아! 선비가 큰 뜻과 기개와 절충한 재주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충의롭고 강한 절개에 감격하여 떨쳐 일어나 몸을 돌보지 않으면 이름이 세상에 드리워지지만 그 마음에서 토해낸 저술이 후학들의 눈에 머물지 않으면 이것이 율체되었다. 폭발하는 기운이 진실로 고급의 (뛰어난) 인물에는 결합되었지만 누가 풀 것이며 누가 해석을 할 것인가. 수백년 수천년을 지나 문득 학문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기를 진원공파 같은 자가 있어 풍문을 듣고 사모하고 정성스럽게 구해 얻어 오래전에 엄몰된 남은 글을 취해 밝게 드러내고 다시 그 미발한 것을 드러내 밝힌다면 회대에 한번 펴는 것이 아니라고 이르리오. 미혹함을 지적해주는 것은 여동반이, 비밀스럽고 심오한 것을 열어준 것은 기백이, 변론하고 참여해서 정정해준 것은 장중경이 했다 하니 자취가 괴이한데 가까이 혹자들은 그 말이 황탄하여 믿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내가 3번 이 책을 반복해서 읽은대 처방을 세운 것이 진실로 기이하고 立論한 것이 아주 바르니 여러 현인들의 심사를 모았으며, 정신을 변화시켰으며, 질병의 기미를 살렸으며, 의사가 치료하는 표준을 정했다. 예로부터 육으로 의서가 또한 아주 많으니 비유컨대 용궁에 들어가면 바다속의 진귀한 보배가 여기 저기 널려 있는 것과 같으니 취하고 버리는 것을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이 책이 펼치기만 하면 일목요연한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진실로 믿고, 간행하여 펴서 세상에 전하여 함께 기뻐하여 칭찬하는도다. 바야흐로 지금은 성인께서 임금으로 계셔 자기를 공손히 하고 치마를 드리움에 지나가면 감화를 받고 머물면 신령스럽다. 백성들은 이미 부지런하고 만방은 이미 조화되어 재앙과 질병은 성덕대업에 녹아 사그러진바가 되었으나 그러나 오히려 아첨저녁으로 스스로 힘써서 질병을 근심하여 한사람도 건강함을 얻지 아니함이 없는 뒤에 편안해짐을 생각한다. 가령 이 책이 출판된다면 과연 행해질 것인가 집집마다 내

용을 통하고 집집마다 외워서 지혜로운 사람은 神明해서 통변을 하고, 中材는 또한 이를 준수해서 따르며 시험함에 효험을 보고, 다시 시험함에 다시 효험을 보고, 오래지나 시험 할지라도 만에 하나 실수가 없다면 임금의 지극한 정치를 우려 더 돕는 자는 세상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것이니 어찌 미미하다고 하리오. 대저 일은 과거로는 전할 수 없지만 오히려 뒤로는 전할 수 있으니 선후는 不同하지만 전한 것은 한결 같다. 화타는 진원공을 얻어서 전했고 기백과 여동빈은 화타를 얻어 또 전했다. 세상에서 이 책을 보는자 진원공이 받은 책이 바로 화타의 불타지 않은 책이라고 여기지 말라. 황홀하게 스승과 벗이 한방에 마주하여 수업과 눈썹을 움직이고 귀로 듣고 얼굴로 명하며 입으로 전해준 것이니 이런 뒤에 청낭서는 의술이 족히 백성에게는 어질게, 만물은 이롭게 할 수 있음을 알게 되니 결국 광릉산이 전해지지 아니한 것과는 같지 않다. 화타의 하늘에 있는 영혼이 나는 그가 유감이 없다는 것을 알겠도다.

때는 강희 28년 세차로는 기사년(1689년) 8월 상순의 좋은 날 의오망의 후학 김이모(字孝荃)는 공경히 쓰노라.)

여기에서 김이모는 진사탁의 석실비록은 화타의 청낭서를 복원한 것이라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 서문은 앞의 첫 번째 서문이 쓰여진 뒤 1년9개월 뒤에 쓰여 졌는데 아마 진사탁이 서로 알고 지내던 김이모에게 출판을 부탁하여 책이 간행된 듯하다. 석실비록 跋에서 金以謀는 陳士鐸과 同里而神交라 했는데 神交는 사상적으로 서로 통하는 친구. 마음이 맞고 잘 아는 친구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써 진사탁과 金以謀의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다만 金以謀는 가난한 陳士鐸을 위하여 석실비록과 본 초신편을 간행하고 있다. 본초신편의 序에서는 華川 金以謀라 했는데 華川은 古地名으로 지금의 절강성 의오현 西南에 있다. 이 책은 출판된 이후 민간에 널리 有傳되었고 刻本도 비교적 많다.

현존하는 版本은 다음과 같다.³⁾

清康熙二十六年丁卯(1687)本澄堂刊本
 清康熙二十八年己巳(1689)明德堂刊本
 清康熙二十八年龍務青雲樓刻本
 清康熙間綠蔭堂刊本
 清康熙間刊本
 日本享保十三年(1728)抄本
 清雍正八年庚戌(1730)廣陵萱永堂刻本
 宛平馬弘儒重刊本
 清嘉慶三年戊午(1798)崇文堂刊本
 江寧寶善堂據萱永堂本翻刻
 禪山天寶樓刊本
 隆文堂刻本
 文淵堂刻本
 菁華堂刻本
 清同治間刊本
 清文發堂刊本
 江左書林藏版

이외에도 淸光緒十年甲申(1884)에 陳士鐸所述醫書三種이라하여『辨證錄』附『胎產秘書』, 『石室秘錄』, 『洞天奧旨』(即 外科秘錄)를 善成堂에서 匯刊印行한 것이 있고 『石室秘錄』과 『洞天奧旨』를 合刻한 것도 있다.

2. 本草新編

五卷으로 되어있고 대략 강희 26년(1687년)에 책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71種의 약이 실려 있고 分類되어 있지 않다. 각 卷은 宮·商·角·徵·羽로 명명되어 있다. 宮集(卷之一)에는 七方論, 十劑論, 辟陶隱居十劑內增入寒熱二劑論, 辟繆仲醇十劑內增升降二劑論이 있고 이어서 人參부터 11종의 약이 실려 있다. 商集에는 36種, 角集에는 61種, 徵集에는 73種, 羽集에는 90種의 약이 실려 있다. 매 약 마다에는 먼저 性味, 升降, 陰陽, 歸經, 功效를 서술했고 이어서 藥性을 論했고 用

3) 嚴世芸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p. 2867.

法, 配伍, 禁忌등의 내용을 언급했다. 이 책은 藥性理論을 탐구하는 것으로 要旨을 삼아 經典을 引用하고 의문점을 分析하고 남들이 상세히 밝힌 것은 간략히 처리하고, 남들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은 상세히 설명을 가하여 은미한 내용을 밝히고 심오한 뜻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상경험을 결합하여 의학의 이치를 闡發하였다. 예를 들어 山慈菇가 怪病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怪病은 多起于痰하니 山慈菇는 正消痰之藥이니 治痰而怪病可除也라. 或疑山慈菇는 非消痰之藥이오 乃散毒之藥也라하나 不知毒之未成者爲痰이오 而痰之已結爲毒이니 是痰與毒正未可二視也라”라고 하였다.

陳上鐸은 本草新編에 대해서 16조항의 凡例를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凡例十六則

『本草』는 自神農以來로 數經兵燹하고 又遭秦火하여 所傳書多散軼하고 魯魚亥豕에 不能無誤니 一字舛錯에 動即殺人이라 鐸躬逢岐伯天師于燕市하고 得聞軒轅之道한데 而『本草』一書는 尤殷質詢하여 凡有所誤에 盡行改正이라

此書는 刪繁就簡하여 凡無關醫道者는 概不入選이오 卽或氣味峻烈하여 損多益少와 與尋常細小之品の 無大效驗者는 亦皆屏棄라

本草善本은 首遵『綱目』이오 其次則遜『經疏』니 二書는 鐸研精有素하여 多有發明하니 非辟二公이오 實彰秘奧라

本草諸書는 多首列出産 收采 修制等項이나 鐸概不登列者는 以前人考核精詳하여 無容再論이라 惟七方十劑之義는 尙多缺略하여 所以로 暢爲闡揚하고 更作或問或疑附後하여 使醫理昭明하여 少爲用藥之助라

是書는 刪『神農』原本者十之三이오 采『名醫』增入者十之二니 總欲救濟生人이오 非好爲去取라

氣運日遷하고 人多柔弱하여 古方不可治今病者는 非言補劑也오 乃言攻劑耳라 故所登諸品은 補多于攻

이라

『本草』는 非博通內典하고 遍覽儒書면 不能融會貫通하여 以闡揚秘旨라 鐸見聞未廣하고 而資性甚純하여 所讀經史에 每善遺忘하여 記一遺萬之譏를 實所未免이니 尤望當代名公之教鐸也라노라

本草는 貴多議論發微오 不尙方法矜異라 鐸所以叙功效于前하고 發尙論于後하여 欲使天下後世로 盡知草木之精深과 人物金石之奧妙니 庶不至動手用藥有錯이라

此書는 多得之神助하여 異想奇思로 命筆時有不自知其然而然之象이라 世有知心이면 自能深識이니 不敢夸詡라

鐸素學刀圭하여 頗欲闡揚醫典이나 邇年來에 未遑尙論이라 甲子秋에 遇純陽呂夫子于獨秀山하여 卽商訂此書하여 輒蒙許可오 後聞異人之教助니 鐸不逮者는 皆呂夫子賜也라

是書는 得于岐天師者十之五오 得于長沙守仲景張夫子者十之二오 得于扁鵲秦夫子者十之三이라 若鐸鄙見은 十中無一焉이라

鐸少喜浪游하여 凡遇名山勝地라가 往往探奇不倦이오 登眺時에 多逢異人하여 與之辨難刀圭하니 實能開蕩心胸하고 增益神智하여 苟有所得이면 必書笥中이라 每入深山라에 見琪花瑤草와 異獸珍禽과 與昆蟲介屬이 異于凡種者는 必咨詢土人하여 考訂靡已라 倘獲奇聞이면 必備志之하여 今罄登茲編라노라

行醫不讀『本草』면 則陰陽未識하고 攻補茫然하여 一遇異症에 何從用藥이리오 況坊刻諸書는 苦無善本이니 非多則略이라 鐸斟酌于二者之間하여 繁簡得宜하여 使讀者로 易于觀覽라노라

是書는 葯味无多로되 而義理詳盡하니 攻過不掩하고 喜忌彰明이라 庶攻補可以兼施라 寒熱可以各用이라 倘謂鐸多事하여 翻前人以出奇거나 或鈔錄无文하여 輕當世而闢異면 則鐸豈敢이리오

著書非居勝地면 則識見이 不能開拓이라 鐸幸客舟中에 日觀江濤洶涌하며 雲巒層疊하고 助人壯懷라 故得

暢抒獨得하고 頗無格格之苦라 然同心甚少하고 考訂未弘하며 終覺盡守一隅오 不能兼談六合이라

鐸晩年어 逢異人于燕市하야 傳書甚多하고 著述頗富하야 皆發明『靈』, 『素』秘奧오 絕不捨世音淺濬이오 有利于疾病匪淺이라 惜家貧不能火梨니 倘有救濟心殷하야 肯損資劖劂者는 鐸當罄囊與之오 斷不少吝하야 以負異人之托이라

위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자신이 北京에서 기백을 만나 의학을 전수 받을 때 본초는 깊이 있게 질문하여 모두 개정을 했다는 것, 1684년 甲子에 여부자를 만나 벌써 이 책에 대해 토론을 했고 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 이 책은 기백의 가르침이 반이고 기타는 장중경과 편작이 전해준 것이며 자신의 의견은 하나도 없다는 것, 자신은 젊어서부터 명산승지를 다니면서 얻어들은 것이 있으면 모두 기록하였다가 이제 이 책에 실는다는 것, 만년에 異人을 만나 소문·영주의 오묘한 뜻을 발명했고 돈이 없어 출판을 못하니 출판할 사람만 있다면 모든 원고를 다 넘기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본초신편에는 呂道人, 岐伯, 張機, 金以謀의 4개의 서문이 실려 있다.

人不學醫는 則不可救人이오 醫不讀『本草』는 則不可用藥이라 自神農氏嘗藥以來로 發明『本草』者數十家나 傳疑傳信하야 未克折衷至正하야 識者憂之하야 冀得一人出而辨論이나 不可得이라 吾弟子陳遠公은 實有志未逮니 丁卯失意하야 肆志軒岐學하야 著『內經』未已에 著『六氣』書라 今又取『本草』著之하니 何志大而書奇乎라 嗟乎라 陳子欲著此書者久矣나 而陳子未嚴命筆也라 陳子少好游하야 遍歷名山大川과 五岳四瀆하야 多所瞻眺하야 頗能抒發胸中之奇나 且所如不偶라 躬閱於兵戰患難興亡營辱者有幾라 親視於得失疾病瘴疫死生者又有幾라 身究於書史花木禽獸鱗蟲者又有幾라 是陳子見聞廣博而咨詢精詳하고 兼之

辨難縱橫하며 又足佐其筆陳하니 宜其書之奇也라 而陳子之奇不在此라 陳子晩年逢異人燕市하야 多獲秘傳하야 晨夕研求하야 幾廢寢食하니 竟不知身在客也라 嗟乎라 眞奇也哉언지 然而陳子雅不見其奇하고 遇異人忘其遇하야 著奇書忘其書하고 若惟恐人不可救而用藥誤之也라 汲汲於著書爲事하야 著『內經』, 『六氣』之書甫竣에 復著『本草』라 嗟乎라 眞奇也哉 而陳子更奇라니 謂醫救一世는 其功近하고 醫救萬世는 其功遠이라 欲夫用藥之人은 盡爲良醫也니 則本草之功用을 又烏可不亟爲辨論哉오 甚矣라 陳子之奇也어 予評閱而序之首는 喜得人仍出吾門而折衷至正하야 實可爲萬世法이니 是則余之所深幸者乎언지

呂道人岩은 題于大江之南하니 時康熙己巳燈宵后三日이라

(사람이 의학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의사가 본초를 읽지 않으면 약을 쓸 수 없다. 신농씨가 약초를 맛본 이래로 본초를 발명한 사람이 수십 명이나 의심을 전하거나 확신을 전하여 능히 中正의 道를 절충하지 못하여 아는 자들이 근심을 하여 한사람이 나와 변론해 주기를 바랐으나 얻을 수가 없었다. 내 제자 진원공은 사실상 뜻은 있지만 미치지 못하였더니 丁卯年(1687년)에 실의에 빠져 의학에 뜻을 다하여 『內經』을 저술하는 것을 끝내지 못했는데 『六氣』의 책을 저술하였다. 지금 또 『本草』를 취하여 저술하니 어찌던 그렇게도 뜻이 의대하고 책이 특이한가. 아! 진원공이 이 본초 책을 저술하고자 한 것이 오래되었으나 진원공이 아직 감히 집필을 시작하지 않았었다. 진원공이 어려서부터 유람을 좋아하여 두루 명산대천과 오악, 사독을 다녀서 본 바가 많아 자못 가슴속의 특이한 것을 펴서 발할 수 있었으나 지나는 과정이 불우하였다. 몸소 전쟁의 환난과 흉망, 영육을 겪은 것이 몇 번 있었으며 몸소 잘잘못, 질병, 전염병으로 죽고 사는 것을 본 것도 또 몇 번 있었으며 몸소 역사서, 꽃, 나무, 금수, 물고기, 벌레를 연구한 것도 또 여러 번 있었다. 진원공은 건문이 넓고 질문도 정밀하고 상세하며 겸해서 중횡

으로 변난하고 또 죽히 그 필진을 도우니 마땅히 그 책이 기이할 것이로되 진원공의 기이함은 여기에 있지 않다. 진원공이 만년에 異人을 북경에서 만나 비전을 많이 획득하여 아침저녁으로 연구하여 거의 자고 먹는 것도 폐하였으니 마침내 몸이 객지에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아! 정말로 기이하다. 그러나 진원공은 평범하여 그 기이함을 보지 못하였고 이인을 만났으나 그 만남 것을 잊었으며 奇書를 지었으나 그 책을 잊고 오직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약을 쓰는데 그릇필까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책 짓는 것을 급급히 여겨 『內經』, 『六氣』의 책이 겨우 마쳐짐에 다시 본초를 지었다. 아! 정말로 기이하되 진원공이 더욱 기이하니 의사가 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그 공이 가까운데 미치고 의사가 만세를 구원하는 것은 그 공이 먼데까지 미친다고 말하였다. 약을 쓰는 사람은 다 良醫가 되고 싶어 하니 본초의 공용을 또 어찌 급히 변론하지 않으리오. 심하도다 진원공의 기이함이어. 내가 검토해보고 머리에 서문을 쓰는 것은 사람을 얻어 내 문하에서 나와 中正의 道를 절충하여 사실상 만세의 법이 됨을 기뻐함이니 이것인즉 내가 깊이 다행으로 여기는 바이다.

도인 여암은 大江의 남쪽에서 쓰니 때는 강희 기사년(1689년) 1월 18일 이다.)

우리는 위의 내용에서 진사탁이 본초서를 지을 정도로 경험이 풍부하였다는 것과 책을 『內經』, 『六氣』, 『本草』의 순서로 집필하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奧稽神農氏^{전대} 首嘗百草^는 憫生民夭折不救也^라 歷代久遠에 壘嬰兵燹^{하고} 祖龍一炷에 竹簡化燼^{하니} 雖醫人諸書^는 詔告留存^{이나} 士民畏秦法^{하여} 盡棄毀靡遺^고 收藏汲冢^은 繕寫訛舛^{하여} 非復神農氏古本^{이라} 嗣後醫者多有附會^{하니} 是『本草』在可信不可信間^에 近更創揚異說^{하여} 競尙陰寒^{하여} 殺人草木中^{이나} 世未識也^{하니} 予甚憫之^라 神農氏^는 救世著『本草』나 後人^은

因『本草』禍世^{하니} 失帝心矣^라 純陽子呂岩^은 與余同志^로 招余와 張沙使君張機^{하여} 游燕市^{한대} 訪陳子遠公^{하여} 辨晰刀圭^{한대} 陳子再拜^{어늘} 受教古書^를 盡傳之^라 張公^은 又授『六氣』諸書^{하고} 因勸陳子著述^{하여} 不可讓之來者也^라 陳子著『內經』成^에 著『六氣』^{하고} 今又著『本草』^{하니} 勤矣^{보다} 陳子幼讀六籍^{이나} 老而不遇^{하고} 借『本草』之味^{하여} 發揚精華^{하니} 其文弘而肆^{하며} 其書平而奇^{하니} 世必驚才大而學博也^나 誰知皆得之吾三人助哉^{리오} 天下有才學者甚衆^{이거늘} 吾輩何獨厚陳子^오 救世心殷^은 無異神農氏^{하니} 則『本草新編』^은 其卽救世之書乎^{언제}

雲中逸老 岐伯天師^는 題于大江之南^{하니} 時康熙乙(己)巳 孟春念九日也^라

(신농씨를 상고해보건대 처음으로 百草를 맛본 것은 백성들이 일찍 죽되 구원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긴 것이다. 시대가 오래 지만에 거듭 兵火를 만나고 진시황이 한번 불태움에 죽간들이 다 타버리니 비록 사람을 살리는 책들은 보존하라고 조칙으로 고했으나 士民들이 진나라 법을 두려워해서 다 버리고 훼손하고 없애 버렸고 收藏해서 감춘 것은 배긴 것이 잘못되고 어그러져서 신농씨의 古本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어서 후세의 의사들이 건강부회함이 많으니 이것이 본초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없는 것도 있게 된 이유이다. 근래에 다시 異說을 지어 다투어 陰寒한 藥을 숭상하니 사람들을 草木으로 죽이나 세상은 알지 못하니 나는 심히 이를 불쌍히 여겼다. 신농씨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본초서를 지었으나 후인은 본초서로 인해 세상에 제앙을 끼치니 上帝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순양자 여암은 나의 동지로서 나와 장중경을 불러 북경에서 유람할 때 진원공을 방문하여 의학을 토론하고 밝힌대 진원공이 재배를 하거늘 가르침을 받은 古書들을 다 전해주었다. 장중경은 또 『六氣』등 여러 책을 주고 인하여 진원공에게 저술을 해서 오는 사람에게 양보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진원공이 『內經』을 완성함에 『六氣』를 짓고 이제 또 『本草』를 지으니 부지런하도다. 진

원공은 어려서 六經(詩, 書, 易, 春秋, 禮記, 樂)을 읽었으나 늙도록 때를 만나지 못하고 『本草』의 氣味를 빌려 正化를 발양하니 그 문장은 넓으면서도 극진하고 그 책은 평이하면서도 기이하니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재주가 크고 학식이 넓음에 놀랄 것이나 누가 모두 우리 세 사람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리오. 天下에 재주와 학문이 있는 자가 아주 많거늘 우리들이 어찌 홀로 진원공에게만 두텁게 하는가. 세상을 구하려는 마음이 깊은 것이 신농씨와 다름이 없으니 본초 신편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책인저.

구름 속에서 편안히 즐기는 노인 기백천사는 대강의 남쪽에서 쓰니 때는 강희 기사년(1689년) 음력 1월 29일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본초가 많이 훼손되어 믿을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여동빈의 인도로 진사탁을 만나 고대의 의서를 다 전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六氣』서는 장중경이 전한 것이며 진사탁의 세상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지극하여 救世之書인 『本草新編』을 전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서문은 앞의 여동빈의 서문보다 40일 정도 늦게 쓰여 졌다.

山陰陳子遠公은 壯游宇內하여 得老湖叢著와 軒岐之書라 其見聞所暨及이 旣廣且博하니 宜其書之奇也라 雖然無識이면 不可著書오 無膽이면 亦不可著書니 閱覽於山川草木禽獸魚龍昆蟲之內라도 而識不足以辨其義하며 膽不足以揚其論이면 欲書之奇니 得乎이 陳子之識은 上下千古하여 翻前人舊案하고 闡厥精微하여 絕非詭異하니 一皆理之所必有也라 異膽橫絶하여 浩浩落落하니 無一語不窮厥秘奧하여 絕無艱澁氣晦於筆端이라 是識足以壯膽하고 而膽又足以濟識也니 欲書之不奇나 難矣라 吾與天師岐伯 純陽呂公은 嘉陳子有著作하여 下使再讀碧落文이오 其奇應이 不止此라 丁卯秋에 訪陳子燕市하니 陳子拜吾三人於座上이늘 天師將碧落文盡傳之하고 余傳『六氣』諸書하니라 陳子

苦不盡識이늘 余廬迪三閏月한대 陳子喜曰 吾今後不敢以著述讓後人也니이나 著『內經』, 『靈樞』, 『六氣』告竣에 又著『本草』하니 奇矣모대 而陳子未知奇也라 百傷不遇하고 嘆息異才之湮沒不彰이라 嗟乎라 有才不用은 亦其常也라 抱可以著作之才나 不用之於著作하니 致足惜也모다 今陳子不遇라가 仍著書以老하니 是有才而不違其才矣니 又胡足惜乎아 況陳子得碧文하야 助其膽識하니 則書之奇는 實足傳遠이라 然則陳子之不遇라가 老而著書는 正天之厚陳子也니 陳子又何必自傷哉리오

康熙 己巳 莫春望後 漢長沙守張機는 題于蕪江하노라

(산음의 진원공은 젊었을 때 온 세상을 유람하여 老湖 叢著(미상)와 의서를 얻었다. 그의 견문이 미친 바가 넓고도 해박하니 마땅히 그 책이 기이할 것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책을 지을 수 없고 대담하지 않으면 또한 책을 지을 수 없으니 산천초목과 금수어룡과 곤충을 열람했을지라도 지식이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며 담력이 그 의론을 발양하지 못한다면 책이 기이해지고자 하나 가능하겠는가. 진원공의 지식은 천고를 꿰뚫어 전인들의 전례를 뒤집고 정미한 뜻을 천발하여 절대로 피어하지 않으니 한결같이 모두 이치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다. 특이한 담력이 횡절하고 넓고 크며 비범하니 한마디 말도 비밀스러움과 오묘함을 궁리하지 않음이 없으며 결코 못 끝에 문장이 어려워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없었다. 이는 지식이 족히 담력을 씩씩하게 하고 담력이 또 족히 지식을 구제해 주는 것이니 책이 기이함을 원하지 않으나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이다. 나와 천사기백과 순양자 여동빈은 진원공이 책 짓는 것을 아름답게 여겨 하계에 내려가 그로 하여금 다시 하늘의 글을 읽게 하였고 그의 기이한 응함은 여기에 그칠 뿐만이 아니었다. 정묘년 가을에 진원공을 북경에서 방문하니 진원공이 좌상에 있는 우리 세 사람에게 절을 하거늘 천사가 하늘의 글을 가지고 다 전해주고 나는 『六氣』 등의 여러

책을 전해 주었다. 진원공이 다 알지 못해 괴로워 하거늘 내가 3개월 동안 인도하고 계발해 주었는데 진원공이 기뻐서 이르기를 “나는 이제 이후로는 감히 저술하는 것을 후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內經』, 『靈樞』, 『六氣』를 저술하여 마침에 또 본초를 저술하니 기이한 일 이므로 진원공은 기이함을 알지 못하였다. 백번 때를 만나지 못했음을 상심하고 특이한 재주를 가지고도 인몰되어 드러나지 않았음을 탄식하였다. 아! 재주가 있어도 쓰여지지 않는 것은 또한 일상적인 일이다. 저술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도 저작하는데 쓰지 못했으니 몹시도 예석한 일이다. 이제 진원공이 때를 만나지 못했다가 저서를 하면서 늙으니 재주를 두고 그 재주를 사장시키지 않음이니 또 어찌 예석해 하리오. 하물며 진원공은 하늘의 글을 얻어 그 담력과 지식을 도왔으니 책이 기이함은 사실상 죽히 멀리까지 유전될 것이다. 그렇다면 진원공이 不遇時했다가 늙으막에 책을 쓰는 것은 바로 하늘이 진원공에게 후의를 베푸는 것이니 진원공이 또 어찌 만드시 스스로 상심하리오.

강희 기사년(1689년) 음력 3월 16일 한나라 장사태수 장기는 무강에서 쓰노라.)

위의 내용에서 정묘년 이전부터 세 사람과 진사탁이 교류가 있었고, 정묘년 가을에 북경에서 기백친사, 장중경, 여동빈의 가르침을 받고 책을 전수받아 『內經素問尙論』, 『靈樞新編』, 『六氣新編』을 짓고 다시 『本草新編』을 지었다는 것이며 또 장중경이 3개월 동안 특별히 진원공을 지도했다는 내용이 있다. 蕪江의 위치는 확실히는 고증할 수 없지만 앞의 여동빈과 기백이 모두 大江之南이라 한 것과 연결하여 안휘성 蕪湖市 북쪽을 흐르는 양자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이 서문은 기백의 서문보다 다시 한달 반 이후에 쓰여졌다.

陳子遠公 所著『石室秘錄』은 皆傳自異人이라 而於青囊肘後에 闡發尤多라 故拔盲起跛가 捷如響應라

나 余既序之하야 梓以行世矣라 無何에 復郵『本草新編』이러니 余讀竟而益嘆其術之奇也며 服其心之仁也라 稽烈山氏^{권대} 躬嘗百草^{라사} 教後世以醫^{하사}고 軒轅岐伯이 相與論性命之學^{하사}니 卽今『金匱』, 『靈樞』, 『素問』, 『難經』이라 一以天地陰陽과 四時寒燥과 五行屈伸과 侮吝之道로 通於人身之風寒暑熱과 五臟六腑와 相生互伐과 強弱通塞之機라니 蓋古先哲王이 明乎天人合一之理하야 而後頤指意會하야 將使天下之人之病으로 無有不治하고 且并其病也而無之而後快焉이라 是道也니 猶之政也니 先王이 固以不忍人之心으로 行之矣라 後世若淳于意 華元化 孫思邈 許穎宗 龐安時諸公은 咸以醫鳴이오 而長沙張公이 能集大成者니 得是道也며 得是心也라 其間繼起니 立論著方이 或少偏畸하야 猶滋訾議이오 而況其凡乎아 自輓近以來로 家執一言하고 人執一見하야 紛然雜然之說行하고 天人合一之旨晦하야 由是習焉에 莫測其端하고 狙焉에 莫窮其變하야 而冀得心應手也니 必無幾矣라 陳子乃慨然以著作自任하야 上探羲皇하고 密證仙眞하야 寤寐通之하야 著書累千萬言이오 而『本草』一編은 略人所詳하고 詳人所略이라 考『綱目』^{권대} 辨疑諸善本하야 惟探注方與眞贗과 與甘溫涼熱治病炮制而已라 茲則一藥에 必悉其功用하고 權其損益이니 入某經通某臟은 人能言之이니와 入某經而治陰中之陽 陽中之陰하고 通某臟而補水中之火 火中之水니 人不能言也라 至或問辨疑하야 齒抽蔗剝하야 愈入愈細라 舉『靈樞』以上諸書니 後世有誤解誤用者라니 必引經據史하야 以辨明之라야 使人不墮雲霧中이라 洵乎陳子術之奇也라 且其論滋補則往復流連하고 論消散則殷勤告誡하야 而於寒涼之味則尤其難其慎하야 不翅涕泣而道之니 固唯恐輕投於一二人이라도 貽害者衆이오 錯置於一二時라도 流毒者遠也라 斯其心可不謂仁矣乎아 今醫統이 久替似續하야 殊難其人이니와 若陳子所云岐伯 雷公 仲景 純陽 諸先哲은 或顯形而告語하고 或憑几而問答라니 殆亦憫醫理之不明하야 欲以斯道로 屬斯人也니 陳子何多讓焉고 謀也 三載薪勞하야 一官叢脞에 不能仰副聖主如

天之仁以廣仁政이나 而獨於民人死生之際엔 三致意焉이라 故得是書而樂爲之序라 又減俸而付諸梓하니 亦欲舉世讀是書者는 務求盡乎其心之仁이오 而不徒驚乎其術之奇焉이니 則夫古先哲王之所傳와 賢士大夫之所述이 庶不至如伯牙海上에 知音曠絶이오 而於以濟世利物也에 思過半矣라

康熙三十年 歲次辛未 仲春中浣之吉에 華川金以謀는 敬書于上元署中하노라

(진원공이 지은 석실비록은 모두 異人에게서 전수받아 의술에 있어 천발한 것이 아주 많았다. 그러므로 눈먼 사람을 다스리고 피로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빠르기가 메아리가 옹하는 것과 같았으니 내가 이미 서문을 써서 출판하여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본초신편을 우편으로 보내오거늘 내가 다 읽고 나서 더욱 그 기술함이 기이함에 찬탄을 하였으며 그 다음의 어젊에 감복을 하였다. 그옥이 신농을 생각해 보건대 몸소 백초를 맛보아 후세에 의술을 가르쳐주시고 황제·기백이 서로 性命之學을 논하시니 즉 지금의 금궤, 영추, 소문, 난경이다. 한결같이 천지음양과 사시의 寒溫과 오행의 굴신과 悔吝(회린)의 도로써 사람 몸의 풍한서열과 오장육부와 상생상극과 강약통색의 기틀을 통하였으니 대개 옛날의 명철했던 왕들이 天人合一의 이치를 밝혀서 그 뒤로 턱으로 지시하고 의미를 회통하여 장차 천하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지 아니함이 없게 하고 장차 그 병마저도 없게 한 뒤에 통쾌하게 한 것이다. 이 도는 정치와 같으니 선왕이 진실로 사람에게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후세에 순우의·화타·손사막·허영중·방안시 등은 모두 의술로써 이름이 났고 장중경이 집대성한 것은 이 도를 얻은 것이며 이 마음을 얻은 것이다. 그 사이에 이어서 일어난 사람들은 의론을 세우고 방서를 지은 것이 혹 조금은 치우쳐서 오히려 허물하는 논란이 있거늘 하물며 평범한 사람에 있어서라. 근래에는 의가들이 하나의 말을 고집하고 사람들이 하나의 견해만 가져서 분분하고 잡된 학설이 횡행하고 天人合一의 뜻이 어두워져서 이로 말미

암아 익혀도 그 단서를 헤아리지 못하고 익숙해져도 그 변화를 궁구하지 못하여 得心應手를 바라나 만드시 기틀이 없게 된다. 진원공이 개연히 저작으로 스스로 임무를 삼아 위로는 복희씨를 탐구하고 비밀히 신선에게서 증명을 구하여 자나 깨나 이치를 통하여 저서한 것이 수천만언에 이르고 본초서는 남들이 상세한 것은 간략히 하고 남들이 간략히 한 것은 상세하게 하였다. 본초강목을 보건대 여러 좋은 책들에서 의심되는 것을 변론하여 오직 처방과 진짜 가짜와 감온량열과 처방·포제를 탐구했을 따름이다. 이것은 하나의 약으로 만드시 그 공용을 다 포괄하고 그 손익을 고르게 한 것이니 모경에 들어가도 모장을 통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모경에 들어가서 陰中之陽, 陽中之陰을 다스리고 모장을 통하게 하여 水中之火, 火中之水를 보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이다. 或問과 辨疑에 이르러서는 고치에서 실을 뽑고 파초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것처럼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더 세밀하다. 영추 이전의 여러 책은 후세에 잘못 이해되고 잘못 쓰여지는 것이 있으니 만드시 경전과 역사서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밝혀야만 사람으로 하여금 구름과 안개 속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진실로 진원공의 기술은 기이하다. 또 滋補를 논하면 이곳 저곳에서 연결을 시키고 消散을 논하면 은근하게 경계함을 고했으며 한량한 약제는 더욱 조심하고 삼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을 뿐만이 아니니 진실로 오직 가볍게 한두 사람에게 두어하더라도 해를 끼치는 것이 많고 잘못 한두 시간을 두더라도 독이 흘러가는 것이 멀리까지 감을 두려워한 것이다. 이러한데 그 마음이 어질다고 이르지 않겠는가. 지금 의학의 종통이 오랫동안 쇠퇴다가 이어지는 듯함에 너무도 그 사람을 얻기가 어렵거니와 만약 진원공이 말한 기백·뇌공·중경·여동빈의 모든 선철들이 혹 모습을 드러내 말로 고해주고 혹 扶기(부기)에 의지해 문답하니 아마 또한 의학의 이치가 밝지 못한 것을 근심하여 이 도를 이 사람에게 부촉하고자 하는 것이니 진원공은

어찌 많이 사양을 하겠는가. 나 김이모는 3년간 일을 해 월급을 받아 하나의 자질구레한 관직에 위로는 聖主의 하늘같은 신仁에 부합하여 어진 정치를 넓히지는 못했으나 오직 백성들의 생사에는 여러번 마음을 다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을 얻어 즐겁게 서문을 쓴다. 또 봉급을 줄여 출판을 하니 또한 온 세상 이 책을 읽는 자 힘써 그 마음의 어진 것을 다 구하고 한갓 그 기술이 기이함에 놀라지 않기를 바라나니 옛날의 先哲과 先王들이 전한 것과 현사·대부가 지은 것이 백아처럼 바닷가에서 거문고를 탐에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끊어지는데 이르지 않고 세상을 구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깨닫는 바가 많이 있을 것이다.

강희 30년 세차는 신미년(1691년) 음력 2월 중순의 좋은 날에 화천당 김이모는 上元署 속에서 공경히 쓰노라.)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자신이 이미 석실비록 서문을 써서 간행을 했고 다시 본초신편을 우편으로 보내워서 출판을 한다는 것인데 여동빈·기백·장중경이 서문을 쓴 시기보다 2년 후에 서문을 쓰고 있다.

본초신편은 강희 30년에 간행된 이후 流傳된 것이 넓지 않고 세상에 남아 있는 것도 아주 적다. 이 판본 외에 “日本 寬政元年(1789년) 東園 松田義厚翻刻本”이 있는데 모두 殘本이다. 康熙刻本은 지금 북경군사의학과학원 도서관에 卷一, 卷二(原刻本), 卷五(抄補本)의 3卷만이 남아있고 日本刻本은 천진시 도서관에 있는데 原刻本은 단지 1권이고 나머지 4권은 강희본에 의거해서 베껴서 맞추어 놓은 것이다. 1982년 산서과학교육 출판사에서 출판한 『本草秘錄』은 이 본초신편의 別稱이다.

3. 辨證奇聞

山陰 陳士鏗遠公父原本, 寧鄉 文守江南紀氏敬述로 되어있다. 본서는 內科·外科·婦人科·小兒科의

病治를 모아 놓았고 이 중에서 內傷雜證이 위주로 되어있으며 변증논치를 강조하고 있다. 내용은 『辨證錄』과 거의 같다.

錢松은 自序에서 “『辨證奇聞』一書는 家藏久矣니 予深受其益하야 詳加刪定하야 分爲十卷하야 付之剞劂하야 用特公諸同世하니 既可爲同人之一助오 亦可告不敢私藏之隱願云爾라 時道光三年歲次癸未에 誥授中憲大夫太醫院院使加三級錢松은 自識하노라”⁴⁾라고 하였다.

-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 清道光二十三年癸卯(1843)重刻本
- 清同治六年丁卯(1867)重繙經元堂藏版
- 清光緒七年辛巳(1881)文奎堂刊本
- 清宣統元年己酉(1909)北京龍文閣石印本
- 上海錦章書局石印本이 있다.⁵⁾

4. 辨證錄

14卷으로 되어있다. 본서는 傳本이 不同하고 더러는 增刪되어 『傷寒辨證錄』, 『百病辨證錄』, 『醫學辨證錄』, 『辨證奇聞』, 『辨證冰監』 등으로 불리어 지는데 내용은 大同小異하다. 이 책은 “辨病體之異同하고 證藥味之攻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卷一에서 卷十까지는 傷寒, 內科, 雜證, 五官疾患등의 證治를 서술했고, 卷十一, 十二는 婦人科이고 卷十三, 卷十四는 外科와 幼科의 證治를 나누어 서술했고 끝에 脈訣闡微가 붙어있다. 全書는 모두 126病症門으로 나뉘어 760餘症을 論辨하고 있다. 매 하나의 病症마다에는 모두 먼저 病形이 나열되어 있고 다음 陰陽互根, 五行生克之理에 의거해 病症의 情況을 分析했고 病機를 명확히 했으며 뒤에 治法, 方藥을 서술하고 아울러 方解가 붙어있다. 각 病症에는 하나의 主方 외에 備用方을 덧붙여 놓아서 참고하고 증에 따라 변통할 수 있게 하였다. 本書는 辨證을 중시했고 다시 증상에 대한 분석과 감별을 중시했으나 舌診, 脈診은 생략되어 있다.

4) 錢松, 辨證奇聞. 서울, 행림서원. 1973. p.5.
 5) 嚴世芸. 상계서. p. 2872.

이 책에는 15조의 범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一. 이 책에는 모두 기백과 장증경이 입으로 전해주고 나 진사탁이 공경히 기술하고 널리 미루어서 세상에 전한 것이다. 사실상 스승의 가르침을 따랐고 감히 스스로를 자랑하여 기이함을 내지 않았다.

一. 변증할 때 변맥하지 않은 것은 증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증을 알 수 있다면 어찌 변맥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변증에 변맥까지 할 수 있다면 병을 치료하는데 더욱 정밀하니 또 사람이 잘 활용하는데 있을 따름이다.

一. 證候를 변론할 때 모두 새로운 견해를 내어서 영추, 소문의 미비점을 밝혔으니 二經에 조금 도움이 없지는 아니할 것이다.

一. 이 외에도 자신이 젊어서 五岳을 유람할 때 異人을 만나 전해 받은 의서와 祖父가 의술을 좋아해 전해오는 家傳秘本, 鄉里의 君子, 장인, 同輩들의 醫論도 필요한 것들은 뽑아 넣어서 이 책을 완성했다는 것과 기백이 전해준 책 중에서 『外經』과 『精監』에서 내용을 뽑은 것이 제일 많다는 것 등이다.

서문은 自序, 年希堯序, 黃晟序, 郭淳章序등이 있는데 후세의 것은 제외하고 自序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丁卯秋에 余客燕市^{합세} 黃菊初放^{하야} 懷人自遠^{한데} 忽聞^{한데} 剝啄聲^{이라} 啓扉^{逐之} 하니 見二老者 衣冠偉甚^{하고} 余奇之^{하야} 載拜問曰 先生은 何方來^오 得母有奇聞^誨 鐸乎^아 二老者曰 聞君好醫^{하고} 特來辨難^耳 余謝不敏^{한데} 二老者曰 君擅著作^{者(才)} 何不著書自雄^{하고} 顧咕咕 時藝^{하니} 竊恥之^{하노라} 余壯其言^{하야} 乃尙論『靈』, 『素』諸書^와 辨脈辨証^{하니} 多非世間語^라 余益奇之^{하니라} 數共晨夕^에 遂盡聞緒論^{하고} 閱五月別去^{한세} 訓鐸曰 今而後^에 君可出而著書矣^{리라} 鐸退而記憶^{하고} 合以所試方^{하야} 日書數則^{하야} 久乃成帙^{하니라} 夫醫道之難也^는 不辨脈^{이면} 罔識脈之微^{하고} 不辨証 ^이

면 罔識証之變^{이라} 今世人은 習診者亦甚多矣^{로대} 言人^人 殊^{하야} 究不得其指歸^{하니} 似宜辨脈^{이오} 不必辨証也^라 雖然^{이나} 辨脈難知^라 不若辨証易知也^라 古雖有從脈不從証之文^{이나} 畢竟從脈者少^{하고} 從証者衆^{하니} 且証亦不易辨也^라 今人所共知者^는 不必辨也^오 古人所已言者^도 不必辨也^니 必取今人之所不敢言^과 與古人之所未及言者^{하야} 而暢辨之^라 論其証之所必有^오 非詭其理之所或無^니 乍聞之而奇^나 徐思之而實未奇也^{일세라} 客曰 布帛菽粟^도 可以活人^이 安在談醫之必奇乎^아 余謝之曰 布帛菽粟은 平淡無奇^나 而活人之理^는 實奇也^라 日服之而不知其何以溫^이 日食之而不知其何以飽^면 致使其理之彰^{이나} 可乎^아 鐸之辨証은 猶談布帛菽粟之理耳^라 客又笑曰 君辨理奇矣^라 已足顯著^{作之才} 奚必托仙以炫奇耶^아 鐸은 尼山之弟子也^니 敢輕言著作乎^아 聞二先生教^{하고} 亦述之而已矣^니 何必諱其非仙哉^{리오} 仙不必諱^니 而必謂是書非述也^면 得母欺世以炫奇乎^아 書非炫奇^나 而仍以奇聞名者^는 以鐸聞二先生之教^가 不過五閱月耳^니 數十萬言을 盡記憶無忘^{하야} 述之成帙^{하니} 是則可奇者乎^니 豈矜世以炫奇哉^{리오}

山陰陳士鐸敬之甫別號遠公又號朱華子^는 題于大雅堂^{하노라}

(정묘년(1687년) 가을에 내가 북경에 머무를 때에 노란 국화가 처음으로 피어서 사람이 먼 곳에서 찾아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득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사립문을 열고 맞이하니 두 노인이 옷과 관을 의젓하게 차려입은 것을 보고 내가 아주 기이하게 여겨 두 번 절하고 문기를 “선생님들은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기이한 소식으로 저를 가르칠 것이 있습니까?” 두 노인이 이르기를 “그대가 의학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辨難하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어리석음으로 사절을 한대 두 노인이 이르기를 “그대는 著作하는 재주가 뛰어나거늘 어찌 책을 지어 스스로 응지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時藝에만 잔소리를 늘어놓으니 그옥이 이것을 부끄러워하노라.” 내가 그 말을

씩씩하게 여겨 영추, 소문의 여러 책과 변백, 변증을 尙論하니 대부분이 세속의 말이 아닌지라. 내가 더욱 기이하게 여기니라. 자주 자주 아침에서 저녁까지 함께 있음에 드디어 서술하는 말을 다 듣고, 5개월이 지나 이별할 때 나 진사탁에게 훈계하여 이르기를 “이제 이후에 그대는 책을 지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물러나 기억을 하고 과거에 시험했던 처방을 합하여 매일 몇 조 문씨를 적어 오래됨에 책을 이루게 되었다. 대저 의도의 어려움은 변백을 하지 않으면 백의 미묘함을 알지 못하고 변증을 하지 않으면 증상의 변화를 알지 못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진찰에 익숙한 자 또한 아주 많지만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달라 결국 그 결론을 얻지 못하니 변백이 마땅하고 변증은 불필요 한 듯하다. 그러나 변백의 알기 어려운 것이 변증의 알기 쉬운 것만 같지 못하다. 옛날에 비록 백을 따르고 증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필경 백을 따르는 자 적고 증을 따르는 자 많으며 또한 증조차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변증할 필요가 없고, 옛사람이 이미 말한 것은 변증할 필요가 없으니 반드시 지금 사람이 감히 말하지 아니한 것과 옛사람이 미처 말하지 아니한 것을 취하여 막힘없이 변증하였다. 그 중에 반드시 있는 것을 논했지 그 이치가 혹 없는 것으로 속이지 아니하였으니 언뜻 들어서 기이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면 사실상 기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객이 이르기를 “포백속속의 평범한 것도 사람을 살릴 수 있거늘 어찌 의학을 말하는데 반드시 기이한 것을 살피는가. 내가 사례하여 말하기를 “포백속속은 平淡해서 특이함이 없지만 사람을 살리는 이치는 실상 기이하다. 매일 입어도 어찌서 따뜻한지를 알지 못하며 매일 먹어도 어찌서 배부른지를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치를 드러냄에 이르고자 하나 가하겠는가, 내가 변증하는 것은 포백속속의 이치를 말하는 것과 같을 따름이다. 객이 또 웃으면서 이르기를 그대가 이치를 논변하는 것이 기이하다. 이에 충

분히 저작할 수 있는 재주가 드러났거늘 어찌 반드시 신선을 의탁해서 기이함을 자랑하는가. 나는 공자의 제자이니 감히 가볍게 저작을 말하겠는가. 두 선생의 가르침을 듣고 또한 기술할 따름이니 하필 신선에게 전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숨기리오. 신선은 숨길 필요가 없으니 반드시 이 책이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른다면 세상을 속이고 기이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책은 기이함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奇聞』이라고 책 이름을 단 것은 내가 두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5개월에 불과하지만 수십만 언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하여 기술하여 책을 이루니 이것인 즉 정말 기이한 것이니 어찌 세상에 자랑하여 기이함을 뽐내려는 것이겠는가.

산음땅의 진사탁, 경지, 별호원공, 또 주화자는 대야당에서 쓰노라.)

이상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진사탁이 1687년 8월경에 기백과 장중경을 북경에서 만나 5개월의 가르침을 받고 이 책을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왜 신선을 의탁하느냐하는 이유에 대해 실지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다고 하여 가르침 받은 것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서문의 내용이 변증을 강조하였고 책이름을 『奇聞』으로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辨證奇聞』의 서문이고 변증기문이 변증록, 변증옥합, 변증병감 등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널리 流通이 되었고 판본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 책의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⁶⁾

清雍正間刊本

清乾隆十二年丁卯(1747)文誠堂刻本

清乾隆十三年戊辰(1748)刊本

清乾隆間魏因華堂刻本

日本寬正四年(1792)凌雲亭刊本

清嘉慶二十二年丁丑(1817)郭淳章刊本

6) 嚴世芸, 상계서, p. 2873.

清道光二十六年丙午(1846)貴州重刻本
 清道光二十七年丁未(1847)文英堂藏版
 清咸豐元年辛亥(1851)延陵堂刊本
 清咸豐四年甲寅(1854)新華齋藏版
 清同治八年己巳(1869)刻本
 清光緒六年庚辰(1880)文奎堂藏版
 清光緒十年甲申(1884)重慶善成堂刊本
 清光緒三十年甲辰(1904)兩儀堂刻本
 文誠堂版
 1919年千頃堂書局石印本
 1921年大成書局印本
 1924年友華書局石印本

5. 辨證玉函

4卷으로 되어 있는데 山陰陳士鐸遠公甫敬習, 新安王之策殿揚甫訂定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陳士鐸이 짓고 王之策이 訂定한 것으로 생각된다. 卷一은 陰證陽證辨으로 傷風, 中風, 吐症, 瀉症, 瘧疾, 咳嗽 등 31門이 실려 있고, 卷二는 虛證實證辨으로 咳嗽, 喘症, 雙蛾, 目痛, 頭痛 등 21門이 포함되어 있고, 卷三은 上證下證辨으로 怔忡, 痿證, 氣病, 痰症, 勞病, 關格 등 81門이고, 卷四는 眞證假證辨으로 癰疽, 火症, 厥症, 吐血, 衄血 등 15門이다. 본서는 陰陽, 虛實, 上下, 眞假로 綱領을 삼고 各 증상을 條目으로 삼아 辨證分析을 먼저 하고 處方用藥을 뒤로하여 상당한 임상적인 가치가 있다.

이 책의 말미에는 “太倉公 淳于意가 傳于燕山之東하니 時 康熙 戊辰 六月之後二日也라”고 하여 1688년 6월 2일에 완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변증옥함에는 王之策(字 殿揚. 號 慎庵)의 서문 단 하나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人身은 一小天地니 大都不外陰陽虛實四字라 故 變理得宜면 愆伏可以不患이오 調劑有法이면 疾病因之無虞라 是在司命者는 有以辨之而已라 苟臨症疏略하고 不暇加辨하여 以致毫釐千里하야 誤人於俄頃者를 曷可勝嘆이리오 此陳子遠公『辨證玉函』之所爲著也라

陳子는 爲於越世胄로 幼抱匡濟하고 恒以公輔自命하야 人亦無不以公輔期之라 賚志未售이늘 間留心於經世之學하니 當途者殷勤徵聘하야 爭欲延致라 後因遠陟蒼梧하고 雅慕獨秀 栖霞諸勝하야 遍歷幽隱한대 遇一龐眉修髯에 衣冠岸偉者하야 相與坐語라 移日에 因出其囊中一編하야 授之曰 熟此면 可以普濟世人이니 蓋活人於筆端과 與活人於指下는 均之躋斯民於壽域也라 하니라 陳子携歸展讀하니 悉岐黃辨論問答語로 與世之所傳『內經』, 『素問』諸書로 迥異하니 始悟前此之成編累帙은 皆僞托以行世者라 陳子掩關肄習하야 不數年間に 卽以醫學으로 擅名於時하니라 客歲에 余仲子忽嬰異症하야 遍召諸醫나 不特不能祛病使去오 并不能辨病所自來하야 轉輒遷延에 經年彌劇이라 蒼崖姜世兄이 親見所苦하고 因爲推轂하니 適陳子以秋試入省하야 亟延診視한대 一劑秦功하고 再服而十減四五矣라 余力扣其所蘊하야 知授受有自하야 大異尋常하니 殊恨相知之晚也라 陳子隨有鉅鹿之游한대 瀕行에 出是編以示余曰 是書吾久欲問世나 憾剛剛無資하야 有懷未遂耳라 因憶當年 余白下友人有居要津者가 向有膏丹異方으로 頗自珍秘하고 余偶過告歸하니 主人厚贖以壯行色이이늘 余堅却不受하고 且請曰 歸裝粗辦하고 不敢以行李相累나 惟得所藏秘方으로 以廣利濟가 是吾願也라 友人이 誼余言이이늘 探囊錄授하니라 余歸卽購求珍藥하야 按方虔制하고 出遇有疾患呻吟者면 輒牽界之한대 靡不立效라 後請乞漸廣하야 窮鄉僻壤과 山陬海澨와 梯航跋涉하야 款門祈懇者는 無虛日이라 惟不喜給富人하니 爲其力能療治也라 余行之數十年에 未嘗有怠色하니라 雖歲有所損이나 然拯患而起廢者는 當不可以數計矣라 今乃秘帙當前에 歷有成驗하니 忍於寶山空返耶하야 爰爲授梓하야 以公當世라 倘陳子游履所不及至와 診視所未及施에 庶幾孰是編하야 辨症而區處之면 不無小補니 知不徒爲紙上陳言也라 陳子所輯洞垣秘笈이尙富하야 未能一一鉅行하니 其以是編으로 爲嚆矢也可라

時康熙癸酉嘉平之望에 天都王之策慎庵氏는 題

於古修堂^{하노라}

(사람의 몸은 하나의 작은 천지나 대체로 음양 허실의 네 글자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섭을 잘하면 편벽된 음양에 의해 병에 걸리지 않고 약을 조제하는데 법칙이 있으면 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의사는 잘 분별하는데 있을 따름이다. 진실로 증상에 임해서 간략하고 변증할 겨를이 없어 조그마한 차이가 천리의 간격으로 벌어져 사람을 잠간사이에 그르치는 것을 어찌 이루다 탄식할 수 있으리오. 이것이 진원공의 변증옥합이 저술된 이유이다. 진원공은 절강성 산음현의 대대로 벼슬하던 집의 후손으로 어려서부터 세상을 널리 구제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항상三公 四輔로 자임하였으며 사람들도三公 四輔가 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았다. 가진 뜻이 실현되지 않거늘 사이사이 마음을 經世之學 에 두니 권세를 가진자들이 정성스럽게 초빙하여 다투어 모셔갈려고 하였다. 뒤에 멀리 창오산에 오르고 항상 독수산, 서하산 등의 승지를 사모하였으며 그윽하고 은벽한 곳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는데 한사람의 눈썹이 희끗희끗하고 긴수염에 의관이 위엄있고 의젓한 사람을 만나 그와 함께 앉아 대화를 하였다.(본초신편의 범례를 보면 이때는 甲子年, 즉 1684년)이오 만난 사람은 순양자이며 만난 곳은 독수산이다) 떠나는 날에 주머니에서 책한권을 꺼내 주면서 이르기를 “이것이 익숙하면 가히 세상사람을 널리 구할 수 있으니 책을 써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손가락으로 맥을 짚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모두 백성들을 壽域으로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진원공이 가지고 돌아와 펼쳐 읽어보니 모두 기백 황제가 질문과 답을 논한 말로 세상에 전하는 내경, 소문의 여러 책과는 완전히 달랐으니 비로소 이것에 앞서 성편된 여러 책은 모두(황제 기백을)위탁해서 세상이 돌아다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원공이 빗장을 걸고 익혀서 몇 년이 안되 의학으로 당시에 이름을 떨쳤다. 작년에 나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려 여러의사들을 두루두루 불렀으나 병을 치료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병이 생긴 원인도 분별하지 못하였으며 이리저리 시간을 질질 끌어 해가 지남에 더욱 위독하게 되었다. 창에 강세형이 직접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의사를 추천하니 마침 진원공이 秋試 때문에 쑤에 돌아와 있어 빨리 불려서 진찰을 하게 했는데 한첩에 효과가 나타나고 두 번 격으니 10분에 4, 5가 감소되었다. 내가 힘써 그 심오한 것을 물어 전해 받은 것이 유래가 있어 일반적인 것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니 너무도 서로 알게 된 것이 늦었음을 한탄하였다. 진원공이 이어서 기록에 유람 할 일이 있었는데 떠남에 임박하여 이책을 꺼내 나에게 보여 주면서 이르기를 “이책을 내가 오래전부터 출판하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출판할 돈이 없어 생각만 있고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니라. 이일로 인해 그 해에 나의 白下에 있는 친구로써 요직에 있으면서 과거에 膏丹의 특이한 처방으로 자못 스스로 진귀하게 여기고 비밀스럽게 여기던 것을 생각해내어서 내가 우연히 들렀다가 작별인사를 하니 주인이 노자를 두둑이 주면서 떠나는 것을 위로하기를 내가 견고하게 거절하여 받지 않고 또 청하여 이르기를 “돌아가는 차림이 거칠고 행장 때문에 피곤하지는 않지만 오직 간직한 비방으로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고 구제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하였다. 친구가 내 말이 옳다고 여기거늘 집에서 비록을 찾아내 전해 주었다. 나는 돌아오자마자 진귀한 약재를 구입하여 처방에 따라 정성스럽게 약을 짓고 나아가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를 만나면 문득 꺼내서 주었는데 즉시로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뒤에 점차 넓힐 것을 청하여 산간벽지와 산속과 물가의 오지를 산넘고 돌건너 남의 집을 방문하여 치료를 구하는 자에게 빈말이 없었다. 오직 부자들에게는 배풀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니 그들의 능력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행한지 수십년에 일찍이 깨은 기색이 없었다. 비록 손해되는 세월을 보낸 것 같으나 병을 구제하고 누워있는 자를 일으킨 것이 숫자로써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비밀스러운 책이 앞

에 있음에 날날이 효험이 있었으니 차마 보물산에서 빈손으로 돌아가겠는가? 이에 주어서 출판하여 당시의 세상에 공개를 하였다. 만약 진원공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과 진찰이 베풀어져 미치지 아니한 곳에 이 책을 가지고 변증을 해서 처리한다면 조금은 도움이 없지 아니하리니 한갓 종이위에 말을 펼 뿐만이 아닌 것이다. 진원공이 지은 洞垣秘笈이 아주 많아 하나하나 새겨서 출판하지 못했으니 이책으로 그 시작을 삼는 것이 可하다

때는 강희 계유년(1693년) 음력 12월 15일 天都 왕지책 신암은 고수당에서 쓰노라.)

위에서 진사탁 의학총서인 洞垣秘笈 중에서 변증육함이 최초로 간행된 책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왕지책이 잘못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전에 이미 석실비록, 본초신편 등이 간행된 적이 있다.

『辨證玉函』은 세상에 거의 流通되지가 않아 지금 남아있는 판본은 康熙間 刻本 一種이 있을 뿐이다. 近年에 상해고적 출판사에서 영인 출판한 것은 康熙間 刻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6. 脈訣闡微

卷은 나뉘어져 있지 않다. 『脈訣闡微』는 一名 『鬼眞君脈訣』 또는 『鬼眞君脈訣闡微』라고도 한다. 全書는 모두 5篇으로 되어 있다.

第一篇은 脈理를 논술했는데 脈에서 지나치게 그 精함을 구하면 도리어 約함에 잘못되기 때문에 鬼眞君脈訣은 단지 38자로 各種의 病機를 포괄한다는 것을 論했다. 중요한 내용은 脈象을 구별하는데 異中之同과 同中之異가 있어 因常而通變하고 時, 地, 症, 人에 따라서 기민하게 운용해야 하니 “急則爲痛, 弦則爲風, 緩則爲虛, 微則爲冷, 數則爲熱, 滑則痰多, 澀則有寒, 洪爲火旺, 大爲血乾(火有餘血不足), 沈爲陰害, 遲爲困乏而不能進, 小則氣衰, 細則血少, 浮則氣舉, 伏則邪搏 扞則血失內無養” 등으로 서술한 脈理가 비교적 임상

실제에 부합한다. 第三篇은 사람의 병은 變遷無常하고 맥 또한 병에 따라 형태를 달리 함으로 반드시 하나의 모습이 아니고 대략 一經之中에 반드시 二脈이 겹해서 나타나니 이른바 “以二脈論症而症始出焉”이니 浮, 沈, 遲, 數, 澀, 滑, 濡 七脈으로 綱을 삼고 나머지 脈으로 紀를 삼으면 千變萬化하는 脈으로 千態萬象의 病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第三編은 맥을 짚을 때 반드시 寸, 關, 尺, 三部를 나누어 보아서 장부의 허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기술했다. 第四編은 맥을 짚을 때 生死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生死之脈은 오로지 맥의 有神無神을 보는 것이니 “有神者是 有胃氣也 無神者是 無胃氣 有胃氣면 雖現死脈而可生이오 無胃氣면 卽現生脈而必死”라고 하였다 第五編은 婦人, 小兒의 脈訣을 論했다.

이 책이 변증록의 뒤에 붙어 있는 이유는 변증록 범례에 “辨證에 不辨脈者는 以證之易識也라. 苟能知症이면 何必辨脈哉리오 雖然이나 辨證에 更能辨脈이면 則治病益精하니 又在人善用之耳라”한데서 찾아볼 수 있다. 변증록은 不論脈했기 때문에 辨證에 대한 보충으로 덧붙여져 있다고 생각된다.

이 冊의 제목으로는 『洞垣全書脈訣闡微』라고 된 곳도 있는데, 洞垣全書는 陳士鐸 의서 叢書名이다. 이 책은 시작에 앞서 山陰 陳士鐸敬之甫別號遠公述, 鬼與區眞君傳이라 되어 鬼與區가 진사탁에게 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책에는 진사탁의 서문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脈訣』은 自王叔和傳後로 世鮮其人하니 誰知叔和止注『脈經』하고 誤傳有『脈訣』也리오 叔和既無『脈訣』이어는 何傳『訣』而不傳『經』고 以『脈經』之多不及『脈訣』之約也원세라 然『脈經(脈訣)』은 始於高陽生이오 非叔和原文也라 鐸遇雲中逸老於燕市하야 傳法之備而不傳『脈經』者는 以『素問』, 『靈樞』二書言脈之多也라 雖然於多之中而求其約이니 安在必求脈於『靈』, 『素』哉리오 鬼眞君의 名은 史區니 雲中逸老弟子也라 貌甚奇하고 面長尺有一寸이며 髮短而鬢하고 深目鼻高

하미 耳垂下且大^{하미} 非凡近土也^{하미} 且岐天師備傳方法^{하미} 何不傳於鐸^{하미} 因授是書^{하미} 皆切脈法也^{하미} 夫眞君^{하미} 爲天師之徒^{하미} 天師傳道之備^{하미} 胡眞君^{하미} 傳脈之約乎^{하미} 蓋病分臟腑^{하미} 若脈則傳臟而不及腑^{하미} 寧脈與病異哉^{하미} 不知病必兼臟^{하미} 而脈不可兼臟也^{하미} 『靈』, 『素』二書^{하미} 有時合而言之^{하미} 何今傳『脈訣』^{하미} 獨與病殊乎^{하미} 以臟病而腑亦病^{하미} 腑病而臟亦病^{하미} 故治臟而腑在其中^{하미} 切臟而腑亦在其內^{하미} 又何必合言之^{하미} 所以單言臟而不及腑也^{하미} 眞君之傳^{하미} 雖出於天師^{하미} 亦眞君之獨見也^{하미} 傳止五篇^{하미} 其言約矣^{하미} 然皆言臟之文^{하미} 治臟^{하미} 不可通之治腑哉^{하미}

山陰陳士鐸敬之甫別號遠公^{하미} 題於文筆峰之小瑯琊^{하미}

(맥결은 왕숙화가 전한 뒤로 부터 세상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드무니 누가 속화는 단지 맥경만 주를 달고 맥결을 두었다는 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리오. 속화가 이미 맥결이 없거늘 어찌 맥결은 전해지지만 맥경은 전해지지 않는고, 백경의 많은 것이 맥결의 간략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결은 고양생에게서 시작 되었고 속화의 원문이 아니다. 내가 雲中逸를름 북경에서 만나 범을 전해 받은 것이 갖추어 졌으며 맥결을 전해 받지 않은 것은 소문·영추의 두 책에 맥을 말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비록 그러하나 많은 가운데 그 간략함을 그 하나 어찌 반드시 맥을 영추·소문에서 구하리오. 귀진군의 이름은 유구니 운중일노의 제자이다. 모습이 기괴하고 얼굴의 길이가 1척 2촌이며 머리는 짧고 고우며 눈은 깊이 박혔고 코는 높으며 깃털은 늘어지고도 크니 범상한 선비가 아니었다. 또한 기천사의 갖추어 전한 방법을 어찌나 진사탁에게 전하지 않으리오하고 이 책을 전수하니 모두 맥을 짚는 법이었다. 무릇 진군은 천사의 무리이니 천사의 도를 전하는 것은 구비되었거늘 어찌 진군은 맥을 전하는 것이 간략한가. 대개 병은 장과 부로 나누어지나 맥은 장에는 전하여 지나 부에는 미치지 못하니 어찌 맥

과 병이 다르리오. 병은 반드시 장을 겸하나 맥은 장을 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영추, 소문 두 책은 때로 합해서 말하거늘 어찌 이제 맥결을 전함에 홀로 병과 다른가. 장이 병됨에 부도 병들고 부가 병됨에 장도 병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을 치료하면 부가 그 속에 있고 장을 맥 짚음에 부가 또한 그 안에 있으니 또 어찌 반드시 합해서 말하리오. 그러므로 단지 장만을 말하고 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진군이 전한 것은 비록 천사에게서 나왔지만 또한 진군의 독특한 견해이다. 전한 것이 단지 5편이니 그 말이 간략하다. 그러나 모두 장을 말한 문장이나 장을 치료함에 부를 치료하는 것을 통하지 아니하리오.

산음의 진사탁 경지 별호 원공은 문필봉의 소낭야에서 쓰노라.)

『脈訣闡微』의 최초의 刻本은 乾隆間의 판본이다. 이 책은 분량이 작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나온 것이 없고 通行本은 모두 『辨證錄』의 뒤에 붙어 있다.

7. 外經微言

『外經微言』은 歷代의 여러 圖書館의 藏書目錄에 모두 나타나지를 않는데 현재는 1984年 中醫古籍出版社에서 天津職工醫學院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 抄錄本을 影印하여 刊行 出版한 책이었다. 이 抄錄本은 國內에는 보이지 않으며 다만 中國에 약간만 출판되어 있다. 그리고 그 또한 이미 破損된 것이 많으며 序文, 凡例, 跋文 등이 모두 브이지를 잃으며, 中醫古籍出版社에서 出版할 때 前言에서 말하기를 “『外經微言』은 原題岐伯天師가 傳하고 陳士鐸이 述이라하나 爲後人託名之作이라. 撰者는 無可考니라.”하여 『外經微言』의 著者가 陳氏라는 것에 대하여 異見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몇가지 情況을 미루어 보아서 이 책이 陳氏의 著述임을 알 수 있다.

陳士鐸은 『辨證錄·凡例』 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岐天師傳書가 甚富하나 而『外經』一編이 尤奇라. 篇中秘奧가 皆采之『外經』, 『精鑿』居多니 非無本之學也라. 鐸이 晩年에 尙欲箋釋『外經』하여 以求正于大雅君子也하노라.”⁷⁾ 이는 陳士鐸이 『外經』이란 책의 注解書를 만들고자 하였다는 內容이다. 陳氏는 『辨證錄』을 淸康熙 丁卯年 卽 西紀 1687년부터 著述에 着手하였는데, 그 序文에서 스스로 “鐸年이 過六旬하여 精神衰邁라.”하면서, 다시 “欲箋釋『外經』”이란 말을 한 것이다. 스스로 나이가 너무 들어 『辨證錄』의 著述을 完成하기에도 힘이 부쳤다고 하면서 다시 어쩌면 著作보다도 더 힘이 든 새로운 책의 註解를 달고자 하였다는 것은 常識의 理解가 가지 않는 部分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陳氏가 『外經』이란 책을 처음으로 받아서 註解에 着手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當時까지 著述해오던 『外經微言』이란 冊의 마무리를 하고자 했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外經』이란 이름은 『漢書藝文志』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그 책은 일찍이 없어졌다. 『外經微言』 第3卷의 “任督生死篇”에서는 “神哉라 論也여 請載『外經』하여 以補『內經』未備하노이다.”하였는데 이곳에서 말한 『外經』은 지금의 『外經微言』을 簡稱하였을 따름이다.

혹자는 陳氏의 다른 著書 중에 『外經微言』이란 이름이 나오는 곳이 없고, 다만, 『辨證錄·凡例』에서 『外經』의 名稱만이 나온다는 것에 根據를 두고 原書의 이름이 『外經』이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可能性은 매우 적다. 왜냐하면, 陳氏의 다른 著書의 題目과 內容들을 볼 때 스스로의 著作에 “經”이란 말을 함부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外經微言』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乾隆 55年 (1790年) 陳氏의 曾孫인 陳鳳輝가 『洞天奧旨』에 쓴 跋文 中에 보인다. 그리고 嘉慶 8年 (1803年) 浙江 『山陰縣志』에서 陳士鐸의 著書 中에 『外經微言』이란 이름이 記載되어 있다. 그 뒤의 陳氏에 대한 史籍에는 모두 이 內容을

좃아 쓰고 있다. 『外經微言』中에 “微言” 두 자는 陳士鐸의 原書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陳鳳輝가 加入하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第3者가 加入하였는지는 確實하게 考察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아래에 보이는 여러가지 情況들을 미루어 『外經』은 『外經微言』이란 題目을 簡稱한 것이라고 推測할 뿐이다.

一. 『外經微言』의 著述 方法은 格調와 託名한 形式 및 書中에 道家의 學說과 醫學을 接木시킨 것같은 內容들이 모두 『石室秘錄』, 『辨證錄』, 『洞天奧旨』등의 醫學 書籍과 같다.

二. 그 中에 있는 學術 思想이 기본적으로 陳氏의 從前에 널리 알려진 『石室秘錄』, 『洞天奧旨』, 『辨證錄』等과 一致하며, 심지어 어떤 境遇에는 글을 이루는 기본 틀까지도 똑같은 것이 있다.

『外經微言』의 成書年代는 確實하게 考證할 수는 없다. 하지만 陳氏의 『辨證錄·凡例』를 根據해서 考察해 보면 “鐸年이 過六旬하여 精力衰邁라.”하는 內容과 “鐸晩年尙欲箋釋『外經』이라.”하는 內容을 보고, 『辨證錄』이 康熙 丁卯年(西紀 1687年)에 著述을 시작한 것을 보면 『外經微言』은 『辨證錄』보다 뒤에 完成된 것을 알 수 있고, 『石室秘錄』中에는 六臟七疇에 대한 簡略한 理論의 紹介만이 있었을 따름인데, 『外經微言』에서는 자세히 說明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石室秘錄』의 完成 時期(『辨證錄』의 完成 時期와 비슷하다.)보다도 뒤에 完成된 것을 알 수 있으며, 『洞天奧旨』의 跋文 中에 그의 曾孫子인 陳鳳輝가 記錄한 다음의 內容을 根據해 본다면 『外經微言』의 著述이 이보다도 먼저였음을 알 수 있다. “所著『素』, 『靈』, 『本草』, 『傷寒』, 『六氣』, 『外經微言』, 『石室秘錄』, 『辨證錄』, 『臟腑精鑿』, 『脈訣闡微』, 『辨證玉函』等書가 付梓行世 已歷有年所矣니라. 第前所刊者가 俱系內科而外科不與焉이러니……”⁸⁾이라고 하였으니, 이를 본다면 『洞天奧旨』가 完成된 1694年 以前에 이미 『外經微言』이 完成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外經微言』의 成書年代는 1688年에서 1694年 사이로 推定된

7) 陳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17.

8) 陳士鐸, 洞天奧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36.

다.⁹⁾

8. 洞天奧旨

『洞天奧旨』는 『外科秘錄』이라고도 하는데 陳士鐸의 外科 專門書籍이다. 全書는 16卷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經絡圖”를 실어 놓았고, 第 1卷부터 “總論”을 4卷에 걸쳐서 실어 놓았으며, 그 다음 9卷에는 各論 部分으로 諸證의 說明이 있고, 마지막 3卷에는 奇方들을 실어 놓았다. 學術的인 特徵은 外科의 瘡瘍에 대하여 辨證이 매우 緻密하고, 治法이 매우 神妙하며 그 곳에 실려 있는 處方들이 臨床的으로 많은 認定을 받고 있어서, 清代의 外科를 發展시키는데 큰 貢獻을 한 書籍으로 認定받고 있다는 것이다. 本書는 현재 乾隆 55年 版本을 基礎로 1991년에 柳長華氏의 點校를 거쳐 出版된 것이 있다.¹⁰⁾

『洞天奧旨』는 全書가 모두 16卷으로 나뉘어 있는데, 第 1卷부터 第 4卷까지는 瘡瘍의 病因, 病理機轉 및 治療 原則 등에 대해서 論述한 것으로 共히 37論으로 構成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瘡瘍의 標本과 辨脈, 陰陽, 善惡, 經絡 등의 發生機轉에 대해서 자세히 論述하였고, 瘡瘍의 診斷과 治療 中에 注意해야 할 많은 問題點에 대해서도 分析을 加하였다. 第 5卷부터 第 13卷까지는 疾病을 나누어 說明하였는데, 外科의 各種 瘡瘍의 病因, 病理機轉, 臨床症狀, 診斷, 治療, 處方用藥에 대하여 論述하였다. 그 안에 있는 病證의 숫자는 143種이다. 第 14卷부터 第 16卷까지는 奇方을 上, 中, 下 3部分으로 羅列하였고, 各 處方을 說明하는데 天師, 仲景, 雷公傳이나, 世傳, 祖傳 등의 處方의 出處를 꼭 밝혀 놓았다.

上述한 各項의 內容 中에 『內經』, 『肘后方』, 『千金方』 등의 書籍外에 『外科精要』, 『瘡瘍全書』, 『外科精義』, 『薛氏醫案』, 『證治準繩』, 『景岳全書』 등의 書籍에서 引用한 部分이 많다.

本書가 처음으로 出版된 年代는 그의 曾孫인 陳鳳輝가 跋文을 쓰면서 校訂 出版을 하였던 乾隆 55年으로 推定된다. 陳鳳輝는 跋文 中에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는데 “曾祖遠公의 所著 『素』, 『靈』, 『本草』, 『傷寒』, 『六氣』, 『外經微言』, 『石室秘錄』, 『辨證錄』, 『臟腑精鑿』, 『脈訣闡微』, 『辨證玉函』等書가 付梓行世하니 已歷有年所矣라. 第前所刊者는 係內科, 而外科不與焉이라. …故로 特付諸劬劓하여 以公海內하나라. 時乾隆庚戌花朝에 曾孫鳳輝謹跋하노라.” 하였으며 그 以前에 出版되었다는 記錄은 다른 곳에는 모두 보이지 않으며, 단지 『中醫圖書聯合目錄』에서만 “康熙三十三年 甲戌古越 大雅堂原刻本”이란 內容이 있는데 이것은 陳氏의 自序에 依據하여 記錄한 內容 같으나, 이때부터 出版이 되었다는 것은 信憑性이 不足하다고 본다. 위의 內容들을 볼 때 本書가 처음으로 出版이 된 年代는 乾隆 55年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思料된다.¹¹⁾

『洞天奧旨』에는 陳士鐸自序와 1698년에 쓴 陶式玉의 서문이 있는데 自序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醫不窮理면 不可談醫오 藥不執方이면 不可用藥이니 以醫藥之難精也라 鐸性喜刀圭나 然而獲效者半이라 每致慨于無師也라 康熙丁卯秋에 遇岐伯天師于燕市하야 談醫者五閱月이니 凡臟腑經絡과 陰陽色脈과 氣血順逆과 邪正虛實과 寒熱異同에 罔不盡言無隱이오 且 遍傳方術하니 試之多奇驗이라 鐸信師之深하야 退而著述하니 若『素問』, 若『靈樞』, 若『六氣新編』, 若『辨證錄』을 俱已告竣에 計八千編有奇니 亦可謂書之富焉이라 癸亥冬에 再游燕市한데 所遇者皆瘡瘍壞症이어서 鐸執方療之하니 病家懷疑하야 棄而不用하고 反信任世醫刀針割裂하니 變出非常이라 復以瑣細劑救援하야 卒至死亡不悟라 鐸痛憫久之리가 因再著茲編하고 名曰『洞天奧旨』라하니 談醫用藥이 無非本諸洞天之傳也라 又慮證多方略하야 附祖父家傳하고 采古今驗方列于後하니 無證不備하고 無方不神하니 總不忍使千百世人

9) 李今坦, 外經微言의 作者成書年代. 中華醫史雜誌. 1992. pp.30~31.

10) 陳士鐸, 洞天奧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 1.

11) 陳士鐸, 上揭書, pp. 2~3.

으로 因瘡瘍而夭喪也라 或曰 子著述甚富에 『靈』, 『素』各書는 窮理甚晰이어늘 今又傳外科하니 毋乃太多難執乎아 鐸謝之曰 『靈』, 『素』之談瘡瘍은 僅論營氣未調耳오 未嘗遍傳方法也라 且瘡瘍之論은 非一二言可罄이니 其證實多하고 其變實異하며 而其禍實大라 病已成而後藥之면 必非輕小劑可藥也오 亂已成而後治之면 必非因循常法可治也어늘 今世治瘡瘍者는 不姑息養癰이면 必鹵莽嘗試하니 害相等也라 而其咎皆本于不學이나 然而學亦非易라 天下讀外科者比比也나 往往用之敗績은 因傳書術之未可師也라 鐸之書術은 傳諸洞天之師하니 其理淵微하고 其方秘奧오 卽間采家傳 世傳之方하니 百試百驗이오 可信可師라 傳之千百世而無誤者也라 或又曰 古人治瘡瘍者는 多用刀針成名이오 吾子는 醫精窮理하고 藥善執方이어늘 何獨刀針略之오 吾恐子有師而無師也라 嗟呼라 鐸豈無師者哉리오 瘡瘍之尙刀針者는 古人不得已而用之니 蓋瘡瘍은 宜急治而不可少緩하며 宜重治而而不可過輕이라 治之早且重하면 則毒且盡散하고 毒散則肌肉頓生하니 何必又尙刀針乎아 凡用刀針者는 皆救敗之法也니 天師所最忌라 故方中無傳이라 鐸誠恐未備하야 采前代名醫用刀針之法入之하야 以佐諸方之不逮하노라 然而 割肉損皮는 無神方以輔之면 未有不顛覆者也라 是刀針可以救敗오 而不可以成功이니 何若專用驗方하야 轉敗尤速하고 而取勝更神하야 萬無一失之爲得乎아 然則 鐸之窮理執方은 乃善于得師也라 出成因하야 弁之首하노라

山陰陳士鐸字敬之號遠公別號朱華子는 題于燕市하니 時康熙甲戌仲冬望後三日也라

(의학에서 이치를 궁리하지 않으면 의학을 말할 수 없고 약에서 처방을 잡지 않으면 약을 쓸 수 없으니 의학과 약에 정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나는 성품이 의술을 좋아했으나 효과를 보는 경우가 반인지라 배양 스승의 없음을 개탄하였다. 강희 정묘년 가을에 기백천사를 북경에서 만나 의학을 이야기 한 것이 5개월이니 무릇 장부 경락과 음양생맥과 기혈순역과 사정허실과 한열

의 다르고 같음에 숨김없이 다 말을 했고 또 방술을 두루 전해주시 시험해 봄에 기이한 효과가 많았다. 내가 스승을 믿는 것이 깊어서 몰려나 저술을 하니 소문, 영추, 육기신편, 변증록을 모두 이미 마침을 고향에 모두 8천여 편(8천여 紙 자라고 된 곳도 있으니 8천여 장의 뜻인 듯하다.)이나 되니 또한 책이 풍부하다고 이를 만하다. 계유년(1693년) 겨울에 다시 북경을 유람할 때 만난 것들이 모두 창양괴증이어서 내가 처방을 가지고 치료를 하니 환자들이 괴이하게 여기고 의심을 해서 버리고 쓰지를 않고 도리어 세상 의사들이 칼과 침으로 피부를 베고 찢는 것을 믿으니 변화(부작용)가 범상하지 않았다. 다시 자잘한 輕劑로 치료하여 마침내 죽음에 이르러도 깨닫지를 못하였다. 내가 오랫동안 슬퍼하고 근심하다가 인하여 다시 이 책을 짓고 동천 오지라고 이름하니 의학을 말하고 약을 쓰는 것이 동천(신선)의 전함에서 근본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이다. 또 증상은 많고 처방이 간략한 것을 염려하여 조부의 가전방을 덧붙이고 고급의 경험방을 채록하여 뒤에다 배열하니 증상이 갖추어지지 아니함이 없고 처방마다 신령스럽지 아니함이 없으니 모두 천백세의 사람들로 하여금 창양 때문에 일찍 죽는 것을 보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혹자가 이르기를 그대가 저술한 것이 아주 많음에 영추, 소문의 각 책은 이치를 궁리한 것이 아주 밝거늘 이제 또 외과를 전하니 도리어 잡기 어려운 것이 너무 많지 않는가. 내가 사색하여 이르기를 영추, 소문에서 창양을 말한 것은 겨우 영기가 고르지 아니한 것을 논할 뿐이었고 방법을 두루 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창양을 논하는 것은 한 두마디 말로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증상이 사실상 많고 그 변화가 사실상 특이하며 그 제앙이 사실상 크다. 병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약을 쓰면 반드시 輕小劑로 약을 써서는 안되는 것이요, 난리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다스린다면 반드시 전통적인 평범한 법으로 다스릴 수 없거늘 지금 세상에서 창양을 다스리는 자들은 고식적으로 창양을 기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솔하게 시술을 하니 사람을 해치는 것이 똑같다. 그 허물은 모두 배우지 못한데 근본 하나 배우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천하에 외과를 읽은 자들이 곳곳에 있으나 왕왕 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전해 받은 책과 기술이 가히 스승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의 책과 기술은 동천의 스승에게서 전해 받았으니 그 이치가 깊고 은미하며 그 방법이 비밀스럽고 오묘하며 간간히 家傳과 세상에 전하는 처방을 채택하니 백발백중이요, 믿을 수 있고 스승 삼을 수 있으며 천백세에 전하더라도 잘못이 없는 것이다. 혹자가 또 이르기를 “고인들이 창양을 치료하는 자는 흔히 칼과 침을 사용해서 명성을 이루었고 그대의 의학은 공리에 정통하고 약은 집방에 훌륭한 거늘 어찌하여 도침을 소홀히 하는가. 나는 그대가 스승이 있다고 하나 스승이 없을까 두려워하노라” 야! 내가 어찌 스승이 없으리오. 창양에서 도침을 숭상하는 것은 고인들이 부득이 해서 쓴 것이니 대개 창양은 급히 치료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해서 안되며 중치해야 지나치게 경제로 치료해서는 안된다. 치료하는 것을 일찍 하고 중제로 하면 독이 또한 다 흩어지고 독이 흩어지면 기육이 바로 생겨나니 하필이면 도침 쓰는 것을 숭상하리오. 도침을 쓰는 것(수술)은 모두 피사된 것을 치료하는 법이니 천사께서 가장 꺼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법 중에 전함이 없었다. 나는 진실로 미비할까 두려워 전시대 명의들이 도침을 쓴 법을 채록하여 끼워넣어 여러 처방의 미치지 못한 부분을 도왔다. 그러나 살을 베고 피부를 손상시키는 것은 神方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도침은 피사된 것만 구할 수 있고, 功을 이룰 수는 없으니 어찌 전적으로 처방을 써서 壞敗된 것을 돌리는 것을 더욱 신속히 하고 훌륭한 것을 취하는 것이 더욱 신령하여 萬無一失을 얻음만 같겠는가? 그렇다면 나의 공리와 처방을 활용하는 것은 스승을 잘 만난 것이다. 책이 완성된 원인을 밝히면서 서문을 쓰노라.

산음당 진사탁 자는 경지 호는 원공 별호 주

화자는 북경에서 쓰노니 때에 강희 갑술년(1694년)음력 11월 18일이라.)

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범례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데 범례의 몇 조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一. 내가 천사기백을 만나 먼저 소문 영추의 두 책을 강독했는데 모두 용저편이 있어 아주 상세하게 논했다. 내가 근래에 사람들이 창양을 앓는 자가 많아 뜻을 기울여 질문함에 천사께서 자세히 말해준 것을 내가 기억해서 잊지 않고 있다가 이제 모아서 책을 완성한 것이다.

一. 천사께서 전해준 처방이 아주 많은데 시험함에 기이한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 없어 감히 비밀로 하지 않고 숨김없이 다전해 스승의 어짊을 넓힌다.

一. 돌아가신 아버지 安期公께서 평생 의학을 좋아했는데 사천성을 유람하다가 아미산에서 도사를 만나 비방을 전수 받았는데 효험이 아주 좋아 또한 이 책 속에 실는다.

一. 내가 지은 『辨證奇聞』은 일찍이 여러 창양증을 치료함에 효과가 있었다. 먼저 논하여 출판을 했지만 간략하고 상세하지 않으니 이 책이 잘 갖추어진 것만 같지 못하다.

一. 외과는 오로지 도침을 숭상하나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면 용저를 길러 潰敗하는 해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천사는 內消法을 주장하고 外刺法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책속의 방법은 내소법이 많은데 사실상 스승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지 利器 쓰는 것을 겁낸 것이 아니다.

一. 외과에서 灸法은 본래 神奇하다고 말하나 목이상은 절대로 뜸을 떠서는 안되니 뜸을 뜨면 대체로 죽음에 이른다. 원컨대 나와 뜸을 함께 하는 사람은 각각 마땅히 이를 준수하여 뜸이 작은 것은 때도 靨滯하다고 이르지 말라.

一. 창양은 火毒으로 이루어지니 攻瀉之藥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一味로 攻瀉하면 氣血이 크게 상해 瘰癧가 되지 않는 것은 火毒이 사그라지기가 어렵고, 이미 瘰癧된 것은 기육이

수렴되기가 어렵다. 반드시 補法을 위주로 하고 攻瀉하는 약을 佐使로 하면 쉽게 돌려서 공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천사가 전해준 처방은 보하는 약이 공격하는 약보다 많고 일반사람에게서 채록한 처방은 공격하는 약이 보하는 약보다 많다.

一. 창양이 밖으로 발생하는 것은 모두 장부가 안에서 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경락을 갖추어 설어서 남김없이 했으니, 또한 사람들은 밖을 살펴 안을 알아야 한다.

一. 음옹, 음저는 흔히 교만 방자하고 잘 성내는 사람과 술을 좋아하고 호색하는 사람 그리고 열약이나 불에 구운 음식을 잘 먹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치법은 반드시 大劑로 毒을 풀어내야지 細小한 湯약이나 환약은 병의 상태에 맞지 않으니 의사나 환자들은 모두 마땅히 이를 알아야 한다.

一. 천사는 도침 쓰는 것을 싫어했다. 그러나 창양의 형세가 대단해서 기육을 제단시킬 때 급히 刀針으로 찌르고 베어내지 않으면 약한 독이 솟구쳐 제단시키고 또 도리어 기육을 해쳐서 기육을 괴사시킬까 염려된다. 내가 전현들이 도침을 잘 사용한 良法을 채록하여 책 뒤에 붙여 놓아 천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였는데 지나치게 기이함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다.

동천오지의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¹²⁾

- 清康熙三十三年甲戌(1694)古越大雅堂原刻本
- 清乾隆五十五年庚戌(1790)山陰陳氏家刻本
- 緯文堂刻巾箱本
- 清乾隆間刻本
- 聚寶堂刻本
- 清光緒間善成堂刻本(附十二經絡圖)
- 見『陳士鐸所述醫書三種』
- 見『石室秘錄, 洞天奧旨合刻』
- 1912年江東書局石印本

- 上海普通書局石印本
- 上海味紀書莊印本
- 掃葉山房石印本(書簽作『改良外科秘錄』)
- 校經山房石印本
- 民國間廣益書局石印本(附十二經絡圖)
- 大成書局石印本
- 錦章書局石印本(附十二經絡圖)

III. 結 論

陳士鐸의 現存醫書 八種에 關하여 研究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石室秘錄은 화타의 청낭서를 복원한 것이라 하며 岐伯이 陳士鐸에게 전해준 것을 張仲景이 보충 설명하여 완성된 책이라 한다.
2. 本草新編은 271종의 약제가 실려 있고 岐伯, 張仲景, 扁鵲이 전해준 내용을 기술했다고 하였는데 凡例나 序文 속에 扁鵲과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3. 辨證奇聞과 辨證錄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病因, 脈診, 舌診 등의 내용이 없고 外感을 제외한 잡병은 거의 五臟五行理論을 바탕으로 病理를 설명하고 있다.
4. 변증육합은 세상에 거의 유통되지 않아 단 하나의 판본만 전해지고 있는데 陰陽, 虛實, 上下, 眞假의 病을 구별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고 있다.
5. 脈訣闡微는 鬼臾區가 전해준 것이라 하며 분량이 적어 단독으로는 간행되지 않았고 辨證錄의 뒤에 붙어 辨證의 不足한 점을 보충해 주고 있다.
6. 外經微言은 陳士鐸이 스승에게서 전해 받은

12) 嚴世芸, 상계서, p. 4588.

책 중에서 가장奇异하게 여긴 책으로 陳士鐸 醫學사상이 집대성 되어 있다.

7. 洞天奧旨는 진사탁의 외과 전문서로 刀針의 사용을 극히 자제하였고 重劑로 大補하는 內消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스승이 전해 준 것과 家傳秘方 그리고 역대 외과서 중에서 至正한 것을 종합하여 완성하였다.

參考文獻

1. 柳長華主編,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 嚴世芸主編, 中國醫籍通考. 서울, 醫聖堂. 1993.
3. 永瑔等撰, 四庫全書總目. 北京, 中華書局, 1995.
4. 李今坦, 外經微言的作者成書年代. 中華醫史雜誌. 1992.
5. 錢松, 辨證奇聞. 서울, 행림서원. 1973.
6. 中國醫籍大辭典篇纂委員會, 中國醫籍大辭典, 中國上海科技出版社, 2002.
7. 陳士鐸, 洞天奧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8. 陳士鐸, 辨證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